

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보통전형
자료집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CONTENTS

PART 1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5
PART 2	2026학년도 논술고사 준비 TIP	10
PART 3	2025학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	19
	•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가이드 답안	20
	• 논술고사(오전) 문제 및 가이드 답안	40
	• 논술고사(오후) 문제 및 가이드 답안	60
PART 4	2025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열]	78
	•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가이드 답안	79
	• 논술고사(오전) 문제 및 가이드 답안	90
	• 논술고사(오후) 문제 및 가이드 답안	98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2026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난이도 등 출제경향을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고사방식	▶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응시기간	▶ 인문/자연계열 : 2025.7.1.(화) ~ 14.(월) ▶ 의학계열 : 2025.7.8.(화) ~ 14.(월) ※ 별도 신청기간 없음(응시기간 내 모의논술고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응시)
신청방법	▶ 수험생 개별 신청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 수시모집 공지사항 '2026학년도 수시모집 모의논술고사 시행 안내' 확인 ⇨ 모의논술고사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응시
홈페이지 공개	▶ 문제, 가이드답안 및 강평영상은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2025.7.18.(금) 업로드 예정
기타사항	▶ 채점 서비스 및 답안 첨삭은 별도 제공하지 않음 ▶ 답안 채점 및 평가는 가이드답안 및 강평영상 자료 참조

* 고사 신청 및 응시 관련 세부 내용은 6월 초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임

2026학년도 논술고사 일정

▶ 개인별 입실 시간 및 장소는 고사 2일 전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인문계열 <2025.10.18.(토)>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09:30~11:30]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오후 [14:30~16:30]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자연계열 <2025.10.19.(일)>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09:30~11:30]	건축학전공(5년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오후 [14:30~16:30]	공학계열광역

의학계열 <2025.11.15.(토) ~ 16.(일) 중 1일>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10:00~12:00]	의예과, 치의예과



PART

1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전형신설	-	[논술우수자] 의예과(4명), 치의예과(7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죽전	인문	문과	국어국문학과	7		
			사학과	7		
			철학과	3		
			영미인문학과	4		
		법과	법학과	16		
		사회과학	정치외교학과	5		
			행정학과	7		
			도시계획 · 부동산학부	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		
			상담학과	5		
		경영경제	경제학과	10		
			무역학과	7		
			경영학부	29		
		사범	한문교육과	4		
			특수교육과	4		
		소계			127	
		자연	-	공학계열광역	108	
	SW융합		소프트웨어학과	12		
			컴퓨터공학과	10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5		
			사이버보안학과	5		
			인공지능학과	14		
	공과		건축학전공(5년제)	7		
	사범		수학교육과	7		
			과학교육과	4		
	소계			172		
	계			299		
	천안		의학	의과	의예과	4
				치의과	치의예과	7
		계			11	
합계			310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5. 9. 8.(월) 10:00 ~ 12.(금) 18:00까지						
서류제출	2025. 9. 15.(월)까지(서류 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논술고사	▶ 개인별 입실 시간 및 장소는 고사 2일 전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 인문계열 <2025.10.18.(토)>						
	<table><tr><th>고사시간</th><th>모집단위</th></tr><tr><td>오전 [09:30~11:30]</td><td>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td></tr><tr><td>오후 [14:30~16:30]</td><td>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td></tr></table>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09:30~11:30]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오후 [14:30~16:30]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09:30~11:30]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오후 [14:30~16:30]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 자연계열 <2025.10.19.(일)>						
	<table><tr><th>고사시간</th><th>모집단위</th></tr><tr><td>오전 [09:30~11:30]</td><td>건축학전공(5년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td></tr><tr><td>오후 [14:30~16:30]</td><td>공학계열광역</td></tr></table>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09:30~11:30]	건축학전공(5년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오후 [14:30~16:30]	공학계열광역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09:30~11:30]	건축학전공(5년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오후 [14:30~16:30]	공학계열광역						
▶ 의학계열 <2025.11.15.(토) ~ 16.(일) 중 1일>							
<table><tr><th>고사시간</th><th>모집단위</th></tr><tr><td>오전 [10:00~12:00]</td><td>의예과, 치의예과</td></tr></table>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10:00~12:00]	의예과, 치의예과			
고사시간	모집단위						
오전 [10:00~12:00]	의예과, 치의예과						
합격자 발표	2025.12.12.(금) 예정						

고사내용

계열	고사내용	비고
인문	- 문제유형 : 인문 · 사회 통합교과형 2문제(각 문제별 소논제가 있음) -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통합사회,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출제범위는 해당 교육과정 내 공통 교육과정을 포함
자연	- 문제유형 : 수학 통합교과형 2문제(각 문제별 소논제가 있음) - 출제범위 :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의학	- 문제유형 : 수학 통합교과형 2문제(각 문제별 소논제가 있음) - 출제범위 :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 세부과목 :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 논술고사 세부 출제범위는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참고(온라인 모의논술고사 7월 시행 예정)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캠퍼스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논술	교과
죽전 · 천안	일괄합산	80%	20%

수능 최저학력기준

캠퍼스	수능 최저학력기준
죽전	없음
천안	- 의예과 :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탐 2개 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 치의예과 :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탐 2개 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 과탐영역 2개 과목 평균 등급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음

2025학년도 신입생 논술전형 입시결과

계열	고사 타임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교과 등급			논술성적 평균	예비 후보순위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오전	국어국문학과	7	246	35.14	3.17	4.02	5.03	76.86	-
		사학과	7	264	37.71	2.07	4.17	5.04	76.86	-
		철학과	3	137	45.67	-	4.81	-	77.83	2
		영미인문학과	4	138	34.50	3.62	4.34	4.97	78.13	-
		경제학과	8	304	38.00	3.40	4.52	5.92	80.31	2
		무역학과	6	228	38.00	3.35	4.34	5.67	77.83	1
		경영학부	28	1,206	43.07	3.47	4.40	5.50	80.77	2
	오후	법학과	14	537	38.36	3.21	4.10	5.00	80.04	3
		정치외교학과	5	186	37.20	3.96	4.50	4.86	77.50	1
		행정학과	6	225	37.50	2.94	3.99	4.53	78.08	-
		도시계획 · 부동산학부	7	276	39.43	4.01	4.66	5.34	81.2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	478	43.45	3.20	4.31	5.29	81.59	1
		상담학과	5	171	34.20	4.13	4.68	5.14	78.10	1
		한문교육과	4	103	25.75	3.77	4.35	5.45	77.88	-
		특수교육과	6	160	26.67	4.03	4.51	4.81	79.25	-
자연	오전	공학계열광역	108	1,566	14.50	2.51	4.51	6.70	81.81	41
	오후	전자전기공학과	5	149	29.80	2.85	3.58	4.27	90.30	1
		융합반도체공학과	4	89	22.25	4.02	4.53	5.42	82.38	-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3	56	18.67	-	4.35	-	87.25	-
		고분자시스템공학부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3	55	18.33	-	5.59	-	78.50	1
		토목환경공학과	4	87	21.75	2.80	4.47	5.49	74.13	3
		기계공학과	4	110	27.50	3.02	4.35	5.79	86.13	1
		화학공학과	5	131	26.20	2.97	3.85	4.96	77.40	1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3	93	31.00	-	4.28	-	85.00	2
		소프트웨어학과	8	212	26.50	2.60	4.58	6.37	88.31	3
		컴퓨터공학과	6	143	23.83	3.24	4.35	5.01	86.00	1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6	145	24.17	2.73	4.33	5.36	84.25	3
		사이버보안학과	4	87	21.75	2.93	4.19	5.39	87.75	3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	53	17.67	-	5.19	-	71.50	3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10	196	19.60	3.01	4.33	5.36	83.95	3
		수학교육과	9	138	15.33	1.87	3.78	5.17	89.67	1
		과학교육과	4	55	13.75	2.93	3.43	4.14	85.38	-

장학안내

대상	장학명	장학금	선발기준
논술우수자	성적우수	수업료 50%	모집단위별 입학 총점 상위 10% 이내
	단국인재	수업료 50%(4년)[단, 건축학 전공(5년)]	각 계열별 수석

* 상기 장학금은 2025학년도 기준이며, 2026학년도 장학금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PART

2

2026학년도 논술고사 준비 TIP

사교육 없이 준비 및 합격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위주로 출제하여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는 것으로 논술고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문제를 검토합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의논술고사 및 강평영상, 논술전형 자료집을 통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계열별 논술고사 유형을 파악하면 준비가 쉽습니다.

-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올해의 출제방향을 파악하고 가이드답안을 통해 채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문계열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자연계열 및 의학계열은 수학문제만 출제되며 문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논술고사 성적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 논술전형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등급 간 점수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논술고사 점수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모의논술고사 안내

2026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 난이도 등 출제경향은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기출문제와 더불어 모의논술고사 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이드 답안을 철저히 분석한 뒤, 강평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정	변경 후	변경 전
6월 중	- 단국대학교 입학팀 - 온라인 모의논술 시행 안내	- 고등학교 교사 - 모의논술자료 온라인 신청
7월 초	- 단국대학교 입학팀 -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시행 - 수험생 -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제 풀이	- 단국대학교 입학팀 - 문제지, 답안지, 가이드답안 발송 - 고등학교 - 고교별 자체 고사 및 평가 시행
7월 말	- 단국대학교 입학팀 - 강평영상 업로드	- 단국대학교 입학팀 - 강평영상 업로드

* 세부 일정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2025학년도 논술고사 및 모의논술고사 강평 영상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논술 고사	 	 
모의 논술 고사	 	 

논술고사 준비 로드맵



- 단국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2026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의 논술전형 내용 확인
- 모집단위별 인원 및 전년도 경쟁률 등 파악
- 전년도 모의논술고사 및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강평영상 학습

-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시행 안내 사항 확인
(6월 초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응시
[인문/자연] 2025.7.1.(화) ~ 14.(월)
[의학] 2025.7.8.(화) ~ 14.(월)
- 모의논술고사 가이드 답안을 활용하여 개별 채점, 강평 영상 반복 청취, 스스로 보완점 찾기
-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범위, 출제유형을 참고하여 본격 논술고사 준비

- 수시모집 원서 접수
2025.9.8(월) 10:00 ~ 12.(금) 18:00까지
- 대학 간 논술고사 일정 중복 여부 확인

수험생 유의사항

- 고사 2일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수험표 출력
(고사장소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
- 수험생 유의사항, 준비물 및 교통편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논술고사 당일 최소한 1시간 전 고사장 도착 권장
-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류만 사용 가능
- 답안 수정 시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논술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고교교사의 제언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출제문제에 대한 고교 교사의 제언

구분	자문단	문항별 난이도				고교교육과정 연계도
		1-1	1-2	2	3	
오전고사	조○○ 선생님(성남 A고교)	중	중	중	중상	100%
	박○○ 선생님(부천 B고교)	중	중상	중상	중하	
	채○○ 선생님(성남 C고교)	중하	중	중	상	
	한○○ 선생님(오산 D고교)	중하	중	중	중	
오후고사	조○○ 선생님(성남 A고교)	중	중	중	중상	
	박○○ 선생님(부천 B고교)	중	중상	중상	중하	
	채○○ 선생님(성남 C고교)	중하	중	중	상	
	한○○ 선생님(오산 D고교)	중하	중	중	중	

☑ 중 또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자료가 교과서의 내용을 가져와 재구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자료인 신문이나 매체에서의 보도 자료 등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기에 무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여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문학, 문학 제시문 등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대부분 발췌되었으며 논제에 사용된 어휘나 개념어 등이 고교 교육과정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합니다. 대학 교육의 내용이나 특별한 교육과정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은 없었으며 제시문과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비교 대조, 분석, 요약, 적용 등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답안의 분량과 문항 수가 적절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제재를 활용하였으며, 신문기사 등의 교과서 외 지문 역시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발문 역시 제재를 읽고 이해하면 외부 근거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논리적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선행학습을 요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 제시문의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나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문항 2, 3의 문항 소요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문항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 여러 과목에서 제시된 자료와 내용 요소가 교실 밖 현실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심도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문항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평소 통계 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생의 경우 문항 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와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출제 과정 및 문항 수준이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 모든 출제 문제는 일반고 대부분이 많이 소화하고 있는 과목 중심으로 출제되어 선행학습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출제 문제의 모든 핵심 개념이 2015개정교육과정 보통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제시문의 대부분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 및 자료가 실렸습니다. 일부 교과서 외 제시문 자료의 경우는 오히려 교과서 자료보다 난이도가 낮은 개념 이해 도움 자료로서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출제 전 두 번 정도의 교육과정 연수를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소화하고 있는 과목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이드답안을 작성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고사 출제문제에 대한 고교 교사의 제언

구분	자문단	문항별난이도		고교교육과정 연계도
		1	2	
오전고사	김OO 선생님(수원 A고교)	중하	중상	100%
	이OO 선생님(수원 B고교)	중하	중상	
	나OO 선생님(서울 C고교)	중하	중상	
오후고사	김OO 선생님(수원 A고교)	상	중하	
	이OO 선생님(수원 B고교)	중상	중상	
	나OO 선생님(서울 C고교)	중	상	

✔ 제시문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나 복잡한 수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개념들로, 미적분 개념, 정적분, 미분, 삼각함수 등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각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과 부분 점수 부여 기준 또한 수험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적분'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합니다.

✔ 대학 수리 논술 고사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교의 수리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을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학적 사고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며, 단순한 운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수리 논술 문항을 분석하면서, 수학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제위원들께서 심도 깊은 고민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문제를 설계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기를 희망합니다.

✔ 전체적으로 논술문제 구성 및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제에서 사용된 함수는 교과서 및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변수를 통한 제한 변역의 설정, 삼각함수의 주기변환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위배됨이 없이 함수를 변형하여 심도있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한 점이 좋았으며 학교현장에서도 관련 함수를 따로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수시 전형과 관련하여 논술전형이 조금씩 확대되는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 논술고사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와 가이드북 등 논술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선택제와 관련하여 논술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대학도 적극적인 논술 정보 제공 및 고교별 모의논술 진행 횟수 증가 등 논술을 손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교육과정과 잘 병행하여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 어떻게 출제하나요?

- 평가목표를 명료하게 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지식과 사고의 성격을 구체화, 유형화했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국어, 사회, 도덕교과의 중심내용을 출제하며, 특정 교과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 변별력 있는 문제를 위해 청소년 권장 교양도서의 소재를 일부 활용합니다.
-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수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출제합니다.

■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2026학년도에는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구성이 변경됩니다.**

문제 구성

2025학년도

구분	문제1		문제2	문제3
	논제1	논제2		
배점	10점	20점	30점	40점
분량	250자	250자	600자	600자
고사시간	1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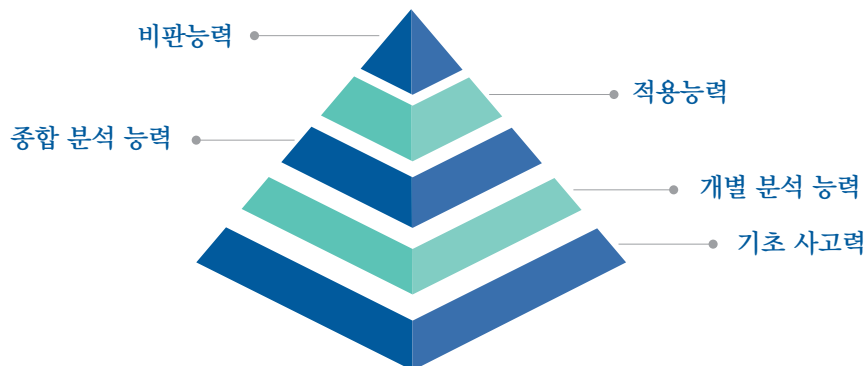
➡

2026학년도

구분	문제1			문제2	
	논제1	논제2	논제3	논제1	논제2
배점	15점	20점	20점	25점	20점
분량	250자	350자	400자	400자	400자
고사시간	120분				

■ 평가기준

- 대학교육에 필요한 범교과적인 지식과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 ①기초사고력, ②개별 분석 능력, ③종합 분석 능력, ④적용능력, ⑤비판능력을 평가합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 어떻게 출제하나요?

- 고교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게 적합하고 대입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합니다.
- 단순 공식이나 지식의 암기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소논제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출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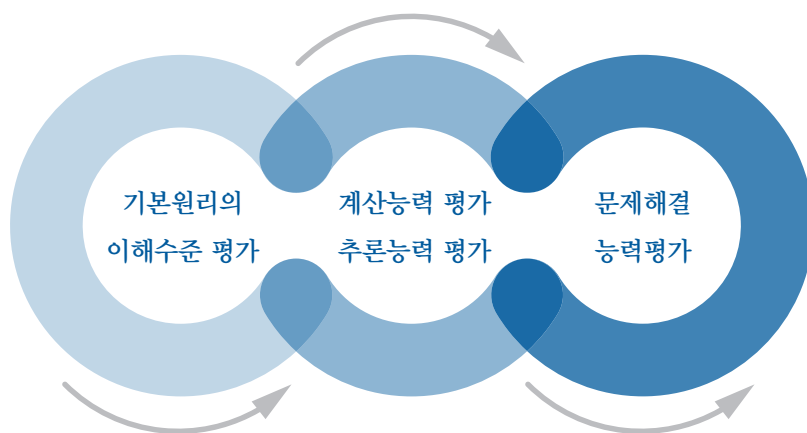
■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2026학년도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 구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문제 구성					
구분	문제1			문제2	
	논제1	논제2	논제3	논제1	논제2
배점	15점	20점	20점	20점	25점
고사시간	120분				

■ 평가기준

- 고교 수학 교과와 기본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추론,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①기본원리 이해능력, ②계산능력, ③추론능력, ④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합니다.



1 의학계열 논술고사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나요?

의학계열 논술고사 문제는 2025.7.8.(화) ~ 14.(월)에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단국대학교 의학계열 모의논술고사의 출제경향(출제범위, 문제유형,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논술전형으로 지원 시 수능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나요?

논술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죽전	인문 자연	없음
천안	의학	- 의예과 :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탐 2개 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 치의예과 :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탐 2개 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 과탐영역 2개 과목 평균 등급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음

3 학생부 교과성적이 높지 않은 편인데 합격할 수 있나요?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 80%, 학생부 교과성적 20%를 반영합니다.
교과성적을 환산했을 때 1등급은 20점이고 6등급은 19점입니다. 교과성적 1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단 1점밖에 나지 않으므로 논술에 강점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가능성이 있습니다.

4 논술전형으로 죽전 및 천안캠퍼스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논술전형으로 캠퍼스간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5 모집단위에 따라 출제 문제가 다른가요?

동일 모집단위는 동일 시간에 고사를 치르며 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만, 오전과 오후는 각각 다른 문제가 출제되므로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고사시간을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3

2025학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명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 의식 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십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의 우리 법 제도에서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차별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堡壘)*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底力)*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胎動)*할 것이다.

* 보루: 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저력: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

* 태동: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틈.

출처: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나]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함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었드려 관찰해 보건대 우리 해동(海東)*은 삼한(三韓)이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예악(禮樂)*이 먼저 발전하였고, 나라 풍속이 검소하여 사치를 몰랐습니다.

……(중략)……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께서는 덕은 삼왕(三王)*보다 뛰어나시고 도는 이제(二帝)*와 비등하시며, 그 공은 유한(劉漢)*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으니, 모든 나라가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이 뒤에 누구를 기다려 바르게 하겠습니까.

……(중략)……

간절히 설명하옵건대 지금 과거의 환법(圜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고, 혹 결단코 행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대략 진술하옵니다.

무릇 쌀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을 따라 교역할 때에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의 사용은 수량(銖兩)*의 가벼운 것이지만 헛되이 소모하는 쪽은 천균(千均)*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곧 수백 리 밖에서 쌀을 운반할 때에 말 한 마리에 겨우 두 섬밖에 실을 수 없을뿐더러 열흘이란 기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사람과 말의 힘이 이미 절반 이상 소모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가난한 백성들이 소나 말이 없으면 직접 등에 지고 가다가 추위와 더위에 병들어 길에 쓰러지는데 그 고통과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돈을 사용하여 사람이 지거나 말에 싣는 고통을 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째 이점입니다.

……(중략)……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공포(貢布)*가 몇 번 습기에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리면 백에 열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백 무더기가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돈을 사용한다면 저장하는 데도 견고하여 특별히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이 그 넷째 이점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영명하신 지혜로 혼자 결단하시어 과감히 실행하시면 그것은 특별히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 혹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또 신의 건의를 조정의 공론에 부치어 공경대부(公卿大夫)*들에게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간절히 저 마원(馬援)*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열세 가지 문제를 풀어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만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 해동: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 예악: 예법과 음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삼왕: 중국 고대의 세 임금.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이른다.

* 이제: 중국 고대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을 이르는 말.

* 유한: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劉邦)이 건국한 전한(前漢).

* 환법: 화폐 제도.

* 수량: ① 얼마 안 나가는 무게. ② 근소하거나 경미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천균: 매우 무거운 무게 또는 그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균’은 예전에 쓰던 무게의 단 위로, 1균은 30근이다.

* 공포: 공노비가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공경대부: 삼공과 구경, 대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있던 것으로 나중에는 ‘벼슬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마원: 중국 후한 때의 무장·정치가(기원전 14년~기원후 49년). 후한 초기에 화폐 ‘오수전’의 사용을 건의하였는데, 삼부에서 열세 가지 어려움을 들어 이를 반대하자 광무제 앞에서 직접 해명하였고, 임금은 이에 따라 화폐법을 시행하였다.

출처: 고형진 외, 『고등학교 독서』

[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 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不調)*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 갔다. 활판(活版)* 윤전기(輪轉機)*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摺紙)*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offset)* 윤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 부조: 건강의 상태가 고르지 못함.

* 활판: 네모기둥 모양의 금속 윗면에 문자나 기호를 볼록 튀어나오게 새긴 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용 판.

* 윤전기: 신문, 잡지 따위와 같이 많은 양을 인쇄할 때 쓰는 인쇄기의 하나.

* 접지: 제본할 때 페이지 순서대로 인쇄된 종이를 접음.

* 오프셋: 평평한 인쇄판으로 하는 평판 인쇄의 하나.

출처: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가이드 답안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1) 요약하고 2)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국어』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및 『고등학교 문학』 교과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설득을 위한 읽기와 쓰기’ 부분에 나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화폐 사용을 건의하는 고려 시대의 상소문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독서의 분야’ 부분에 나오는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의 사례 중 「돈을 주조하기를 청함」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삶을 다룬 1970년대의 소설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부분에 나오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이삼형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260~263쪽.
- [나]: 고형진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164~167쪽.
- [다]: 이송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 신사고, 226~228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각종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법과 제도가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나]는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1055~1101)이 물물 교환의 폐단을 지적하고 화폐 사용의 필요성을 건의한 상소문이다. 곡식을 이용한 물물 교환은 운반이 불편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화폐의 제정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는 백성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이 글은 현행 제도에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필요한 법이 있다면 나중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다]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의 현실을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을 통해 보여 주는 소설이다. 제시문에서는 인쇄 공장에 다니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 준다.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 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노동자의 문제 상황이 드러난다.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차별 금지 소송 증가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곡식을 이용한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화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한다. 화폐를 사용한다면 운반과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한다.

2번) 예시 답안

제시문 [다]에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 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고가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나]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NOTE

[가] 특정 가수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대신 노래를 불러 주는, 이른바 AI 커버(따라 부르기) 영상이 유행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막대한 돈과 시간이 투입됐던 기술이 이제 2~3분 만에 한 곡을 완성하니, 흥미 유발 요소에 제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다. 의외성이 클수록 대중의 감응도 뜨겁다. 머큐리, 임재범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를 석권 중인 비비의 '밤양갱'은 고(故) 김광석, 아이유, 박명수, 오혁, 그리고 만화 캐릭터 보노보노까지 불렀다.

……(중략)……

아이유 AI의 커버곡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밤양갱' 인기를 견인한 1등 공신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망상'도 드는 것이다.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 부르는 민중가요, 김정은이 부르는 애국가 같은 걸 듣게 된다면….(이미 누군가 만들었을지도 모른다)'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 두렵지만 막연했던 그 말이 이토록 명확하고 가깝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더라. AI 커버의 확산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AI가 소설을 쓰는 거대하고 단편적인 이벤트와 다르다. 동시다발적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 훨씬 크고 충격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출처: 『문화일보』, 2024. 3. 13.

[나] 대중 매체는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렸지만 대중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즐기는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 대중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중략)……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대중문화의 보급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행의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한편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과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문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소비되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문화 보급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출처: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는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 감식안: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

* 미감: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또는 아름다운 느낌.

출처: 민현식 외, 『고등학교 국어』

[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을 흉내내는 ‘성대모사’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누구나 모방하는 기쁨을 느낀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기 있는 인물을 흉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R.W. 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방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흉내냄의 끝불견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국의 절세미인 서시(西施)에 대한 이야기도 이를 반영한다. 베낀 사람을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자기 것처럼 발표하는 ‘표절’은 범죄로 간주되며, 교육부 감사에서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적발되거나 연구원의 보고서 표절 사례 등이 이에 대한 경고를 보여 준다.

이처럼 모방과 표절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표절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진다.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모방은 웃음을 주기 위한 오락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모방이 아닌 독창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 슬갑도적: 남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훔쳐다가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출처: 『경향신문』, 2000. 8. 28.(출제진 재구성)

가이드 답안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비판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3) 문화와 일상생활’ 성취기준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4) 과학과 윤리’ 성취기준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및 ‘(5) 문화와 윤리’ 성취기준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박동미, 「‘AI 커버’ 언제까지 놀이일까 [뉴스와 시각]」, 『문화일보』, 2024. 3. 13.
 -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10~115쪽 관련.
 - 정택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23쪽 관련.
- [나]: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10~111쪽.
- [다]: 민혁식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좋은책 신사고, 203~205쪽.
- [라]: 경향신문, 「[여적] 표절 시비」, 『경향신문』, 2000. 8. 28.
 - 정택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26~127쪽 관련.
 - 정택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149~155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는 최근 유행하는 AI 커버곡이라는 문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은 AI 기술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문화로,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AI 커버곡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유행을 불러왔다.

[나]는 대중 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글이다. 대중문화는 특정 계층만 향유하던 문화를 대중이 즐기고 소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와 미감(美感)에 대한 글이다. 예술은 창작의 과정과 그 결과물 자체로서 미적 가치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창작자의 성찰과 독창성을 드러내므로 기존의 작품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 형성된 문화라는 점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했으므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가 독창성이 부족한 기계적인 결과물의 형태라는 점을 비판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문항 해설 2 (10점)

[라]는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방과 표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R.W.에머슨의 “모방은 자살”이라는 표현, 중국 절세미인 서시에 대한 이야기,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는 표현을 그 예로 들면서 모방과 표절이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표절이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예술 분야의 독창성을 다시 강조한다.

◆ 채점 기준

- [라]를 활용하여 [가]의 현상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AI 커버곡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은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으로 인해,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행하게 되었다. [나]는 대중 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특성에 관한 글로, AI 커버곡 역시 새롭게 발전된 AI 기술로 인해 형성되고 보급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AI 커버곡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를 강조한 글로, 기존의 동일한 음원에 인공 지능으로 학습된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덮어씌운 AI 커버곡은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 기계적인 결과물이므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는 모방과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 커버곡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문이나 예술 분야의 표절은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커버곡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문제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와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 (중략)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래의 양 당사자 중 판매자만 품질을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하는데,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의 품질에 비례하여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양질의 중고차는 판매되지 않고 낮은 품질의 중고차만 판매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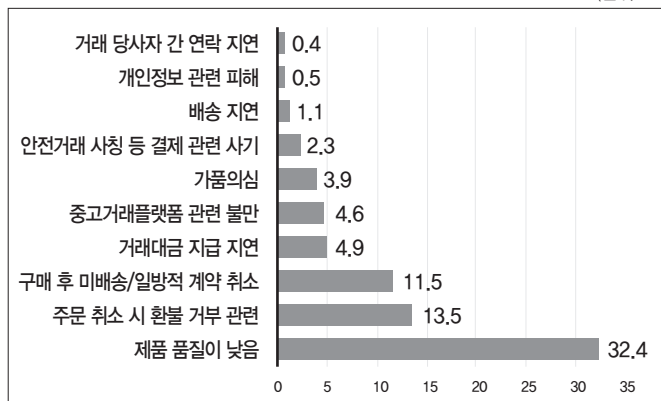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민영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에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보험 가입 후에는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출처: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사건이다.

[나]

〈중고거래 시 이용자 피해 유형〉

(단위: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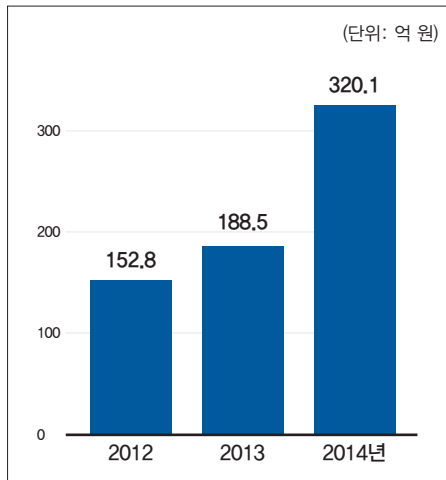
〈중고차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상이	성능·상태 불량	572	72.1
	주행 거리 상이	25	3.2
	침수 차량	24	3.0
	기타	11	1.4
	소계	632	79.7
세금 등 기타 비용 미정산		34	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	2.1
기타		110	13.9
합계		89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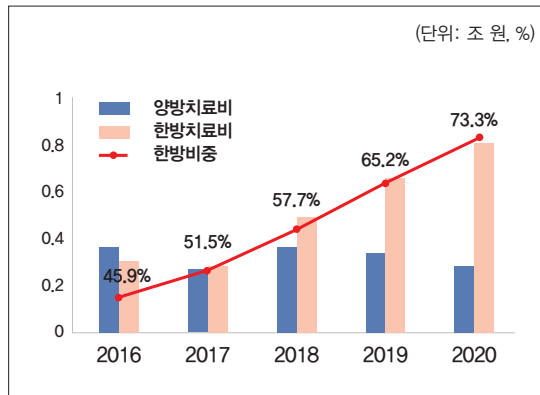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

[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환자 적발 금액 통계>



출처: 『연합뉴스』, 2015. 2. 23.

<경상환자* 치료비 및 한방* 치료비 비중>



정부는 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 병실 입원료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한방의 비중은 2016년 4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3.3%로 수직 상승했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2016년 1조 9,30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092억 원으로 50% 급증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 5년간 경상환자와 한방 치료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 급증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 경상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의미함.

* 한방: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 양방: 해부학에 근거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 진료수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 로 책정된 가격을 의미함.

* 슬랩도적: 남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훔쳐다가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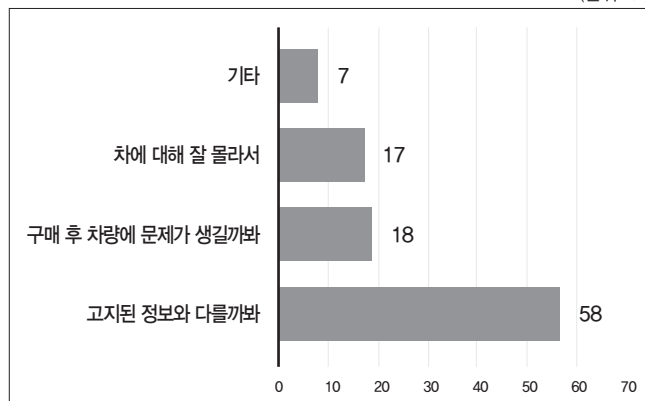
출처: 『한국경제』, 2021. 9. 30.

[라]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가계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은 수입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출처: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우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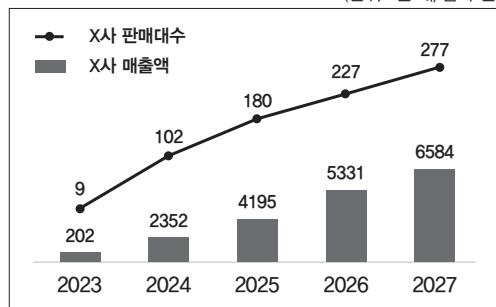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헤럴드경제』, 2022. 4. 6. (출제진 재구성)

〈국내 브랜드 인증중고차* 사업 전망〉

(단위: 천 대/십억 원)



* 인증중고차: 정해진 인증 절차를 통해 연식과 주행 거리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능 점검과 수리를 통해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판매하는 중고차를 의미함.

출처: 『뉴스웨이』, 2023. 10. 17. (출제진 재구성)

[마]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므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편익과 비용이 변화하면 선택도 달라진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다.

.....(중략).....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경제 주체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즉 경제적 유인은 경제 주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주요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사	상품	혜택
□□생명	□□보험	- 가입자가 걷기 등 목표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10,000포인트 달성 시 보험료 10% 할인
○○생명	○○보험	일 평균 10,000보 이상 걸은 경우 월 보험료 50% 환급
☆☆화재	☆☆보험	- 가입자가 걷기, 달리기 등 목표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 제휴 쇼핑몰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기프티콘 구매 가능
△△보험	△△보험	- 혈당, 걷기 등 건강 미션 달성 시 포인트 제공 - 앱을 통해 1포인트당 1원으로 건강관리용품, 식품 등 구매 가능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 가입자(보험소비자)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건강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함.

출처: 『중앙일보』, 2018. 6. 8. (출제진 재구성)

〈보험회사 혜택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의지에 대한 보험 가입자 응답률〉

(단위: %)

구분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20.0	31.5	34.2	14.3
식생활 개선	18.7	30.4	35.6	15.3
금연	33.2	37.2	20.6	9.0
금주 혹은 절주	28.8	35.8	24.3	11.1

출처: 최장훈 외, 2019

문제 3번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600자 내외)

가이드 답안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및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의 관점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44쪽.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75~76쪽.
- [나]: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보도자료』, 2022. 7. 4.
- 박형준 외(2020),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85쪽 관련.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보도자료』, 2019. 8. 13.
- 박형준 외(2020),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85쪽 관련.
- [다]: 박용주, 「나이롱 환자 2년새 두배...103개 보험사 7억 챙긴 일가족도」, 『연합뉴스』, 2015. 2. 23.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76쪽 관련.
이호기, 「「나이롱 환자」 막는다 ... 과실 큰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 더 부담」, 『한국경제』, 2021. 9. 30.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76쪽 관련.
- [라]: 정찬수, 「소비자 10명 중 6명 “생애 첫차로 중고차 OK”」, 『헤럴드경제』, 2022. 4. 6.
- 박형준 외(2020),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85쪽 관련.
박경보, 「‘진짜 중고차 혁명’ - 현대차·기아 10월 판매에 시장 ‘들썩’」, 『뉴스웨이』, 2023. 10. 17.

- 박형준 외(2020),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43쪽 관련.
- [마]: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20쪽.
황의영, 「하루 1만보 걸으면 보험료 깎아줘요」, 『중앙일보』, 2018. 6. 7.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189쪽 관련.
- 최장훈 외(2019),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89쪽~295쪽.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23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에 설명된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와 [다]의 문제를 각각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에 제시된 자료에서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나]에 제시된 자료에서 소비자들이 낮은 품질, 낮은 성능의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많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가]에서 설명된 역선택의 대표적인 현상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다]에 제시된 자료에서 환자의 과잉 진료, 허위 의료비 청구 사례가 많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가]에서 설명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현상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라],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 [다]의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제시된 인증중고차 매출 증가 자료를 활용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때 역선택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마]에 제시된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과 소비자의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자료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이 제공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상품의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문제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는 역선택의 사례이다. 판매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가볍게 다친 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진료받거나, 심지어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나]의 역선택 문제는 [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품질을 점검한 인증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더 양질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역선택 문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할 수 있다. [다]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제공하면 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 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NOTE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 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명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
2. 답안 작성란에 개인 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생 인적 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 금지)
4.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감독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뽀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중략)…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겍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중략)……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 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맹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중략)……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 웃자라: 쓸데없이 보통 이상으로 많이 자라 연약하게 되어.

출처: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나] 조선 시대의 최고 과학자 장영실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힌다. 동래현 관노*에서 종3품까지 오른 장영실이지만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장영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의외로 처벌에 관한 것이다. 새로 만든 세종의 가마가 시험 운행 중 부서지자 장영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맞고 파면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장영실이 파면된 해에서 약 600년이 지나 4차 산업 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실패를

허(許)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 연구 개발 성공률은 96퍼센트라고 한다. 얼핏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이다.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20퍼센트에 그쳐 70퍼센트에 근접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중략).....

만약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부서진 가마가 자동차로 태어나지는 않았을지, 조선형 소총이 개발되어 임진왜란의 고초*가 없지는 않았을지,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나지는 않았을지.....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앞에 둔 지금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자.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의 쓴맛은 성공의 확률을 그만큼 더 높여 주는 법이다.

* 관노(官奴): 관노비.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 파면(罷免)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되다.

* 허(許)하다: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다.

* 고초(苦楚):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다] 훈이가 고등학교 이 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톨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대.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떡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냐,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떡하면 많이 벌 수 있냐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냐,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순데,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배 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하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가 내 말의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게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 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중략).....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이 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이라고 시켜 대답시키고 어떤 삼수갑산으로 귀양을 보냈기에 이렇게 한 번 다니러 오지도 못하느냐고 하기도 했고, 집세만 받아먹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이라고 객지로 노동별이를 보냈느냐고도 했다.

.....(중략).....

훈이가 젓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빛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식을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 병폐(病弊):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직이나 사물의 내부에 생긴 폐해.

출처: 류수열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부분에 나오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탕자나무였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서 ‘설득하는 글’ 부분에 나오는 「실패를 허하라」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다룬 1970년대의 소설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인물의 삶에서 세상을 읽다’ 부분에 나오는 「카메라와 워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이삼형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242~244쪽.
- [나]: 박영민 외(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164쪽.
- [다]: 류수열 외(2018), 『고등학교 국어』, 금성출판사, 204~217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유년 시절 탕자나무 가시에 얽힌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이끌어낸 수필이다. 제시문에서는 어린 시절 탕자 가시에 찔린 고통과 살면서 마음속에 지녀왔던 '가시'를 통해 고통이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화가 로트레크 역시 절망을 딛고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그림을 남겼다고 한다. 글쓰이는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날카로운 가시를 통해 오히려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며, 혁신을 위한 도전을 막는다며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 시대의 최고 과학자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가 부서진 책임을 지고 곤장 80대를 맞고 파면된 역사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성공률은 96퍼센트이지만,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글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이 땅 위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고통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6.25 전쟁의 비극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남기고 간 상처로 인해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나'는 오빠 부부가 사망하자 젖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운다. '나'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훈이'는 이과를 선택해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제시문에서 '나'는 이공계가 취직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며 '훈이'를 설득한다. '훈이'는 고모의 강요가 못마땅하면서도 순응한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 달리 '훈이'는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취직도 잘 되지 않아 집을 떠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 '나'는 '훈이'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제시문에서 '나'는 가족의 '가시'인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 문과 출신인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다면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어려울까 두려워한다. '나'는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 조카 '훈이'에게 이과를 강요했으나 '훈이'의 진로는 평탄하지 않았고, 이후 고된 삶을 살고 있기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에서 서술자는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조카 '훈이'를 이과에 보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활용해 서술자가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조카 '훈이'에게 이과를 강요했으나 서술자의 기대와 달랐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활용해 서술자가 시행착오나 실패 없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조카를 양육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어린 시절 탕자 가시에 찔린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2번) 예시 답안

[다]에서 서술자는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조카 '훈이'를 이과에 보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는 [가]에서처럼 서술자가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조카의 진로를 강요해서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서술자가 시행착오나 실패를 존중하기보다 안정된 삶만을 추구해서이기도 하다.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각각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콩트, 뒤르켐, 파슨스를 포함한 기능주의자들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을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로 보고,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기능주의자들은 계급, 인종, 젠더에 기반을 둔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적 분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정과 사회적 질서에만 주목했다. 불평등은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사회적 희소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며,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은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으로 본다. 기능주의는 사회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기존 질서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출제진 재구성)

[나] 갈등론은 한 사회에서 희소 가치를 많이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론은 한 사회의 재화, 권력과 같은 희소 가치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의 안정과 유지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을 통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라는 것이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대하여 피지배 집단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며,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아닌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갈등론은 사회 구성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집단 간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출처: 신형민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출제진 재구성)

[다]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우리나라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 특히 2023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지역보다 1.8배 높았고, 서울 내 고소득층(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은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 원 미만)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했다. 이러한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의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되었다.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4. 8. 27.

[리]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에서는 복지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권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롤스(J. Rawls)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평등한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회 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는 국가이다. 그는 선천적 능력, 가정 환경 등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우연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교육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집』(출제진 재구성)

가이드 답안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 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와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구정화 외(2017),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6쪽, 133쪽.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 14쪽, 130쪽.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5쪽, 132쪽.
- [나]: 구정화 외(2017),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6쪽, 17쪽, 133쪽.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 16쪽, 131쪽.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6쪽, 133쪽.
- [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2024. 8. 27.),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제2024-26호.
- [라]: 황인표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181쪽.
박찬구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씨마스, 182쪽 관련.
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49(병합), 판례집12-1.
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7헌마1456, 판례집 20-1상.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 [가]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며, 사회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을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로 보며,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강조한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 희소 자원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필요하며 당연한 것으로 보며, 분배 기준은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으로 본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갈등론은 사회적 관계의 속성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고, 사회 안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에 주목한다. 갈등론은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로 본다.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된 것이며,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본다. 집단 간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특정 사회.문화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한 자료를 읽고 서로 다른 두 관점(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각각 그것을 설명하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시문이다. 제시문에 사용된 사회 불평등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사회 불평등의 다양한 양상 중 '교육 기회와 수준'에 대한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기능론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분배 기준은 구성원 간 합의된 것으로 공정하다고 보지만,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된 결과이며, 분배 기준 또한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 채점 기준

- 제2문 첫 번째 질문의 배점은 20점이며, 이는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의 핵심 내용과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10점), '사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각 관점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평가'(10점)로 나누어 채점 기준을 설명함
- [가]의 기능론, [나]의 갈등론의 핵심 내용과 각 이론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기능론의 내용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유기체',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 '기득권의 집단 논리'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모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나]의 갈등론의 내용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 '지배 집단의 가치 반영',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모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사회 불평등 현상 중 교육 기회 불평등에 대한 요약 설명과 [가]와 [나]의 관점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각각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내용에 대하여 '사교육비 증가', '교육 기회 불평등', '부모의 경제적 효과의 결과', '거주지역 효과'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하고, [가]의 기능론의 관점, [나]의 갈등론의 관점을 비교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와 [나]의 관점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논리적으로 잘 평가하였다면 10점을 부과할 수 있음
 -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가]의 기능론은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나]의 갈등론은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결론뿐만 아니라, [가]와 [나]의 이론이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근거, 즉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기능론의 경우)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갈등론의 경우) 등으로 근거까지 모두 들어 잘 설명하였다면 10점을 부과할 수 있음

❶ 문항 해설 2 (10점)

[라]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관련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 국가관과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의 내용을 보면, 현대 복지 국가관에서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국가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 롤스의 정의관에 따르면 '기회 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는 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제2문 두 번째 질문의 배점은 10점이다.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 따른 설명(5점), 헌법재판소에 따른 설명(5점)으로 나누어 채점기준을 설명함

- [라]의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 또는 롤스의 국가관 중 하나의 견해를 설명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 '인간의 존엄성' 과 '기회균등이나 약자 배려'에 대한 근거 설명 없이 국가의 노력만을 설명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 [라]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자유권적 및 사회권적) 기본권, 국가의 과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가]의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로 보며,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인 가치나 규범 준수를 강조하지만, 기득권 유지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나]의 갈등론은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보며, 대립과 갈등을 통한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강조하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설명한다. 사교육 불평등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사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가]는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며, 분배 기준은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평가하지만, [나]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된 것으로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라]에서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라]의 관점에서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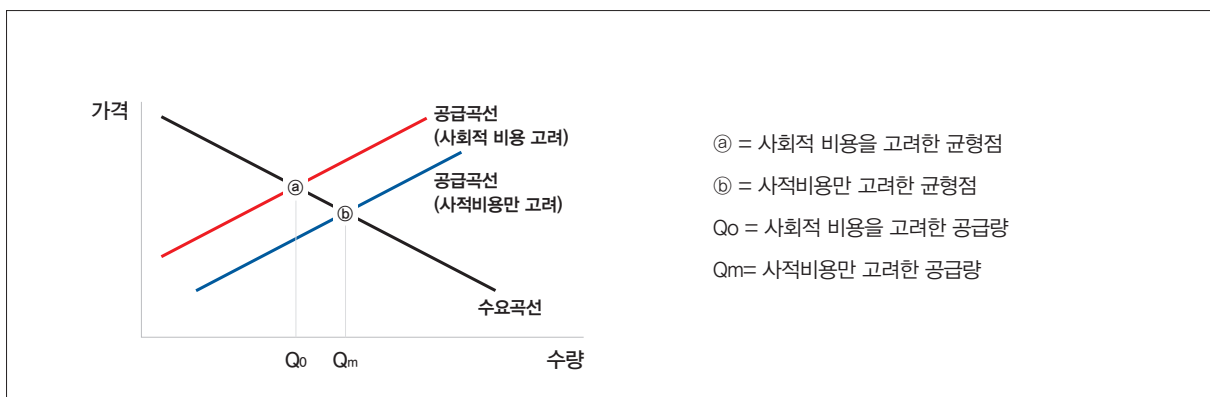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 또는 소비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공급 또는 소비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출제진 재구성)

공급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공급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공급자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중략)… 공급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공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 손해는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급자의 사적비용 + 외부 불경제에 따른 비용(외부비용)’이 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출제진 재구성)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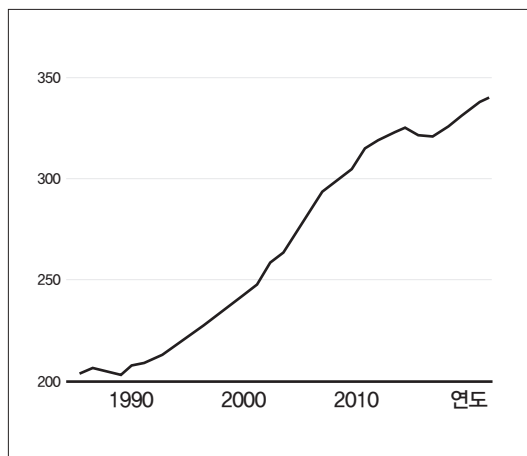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출제진 재구성)

[나]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는 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 대상인 주요 온실가스는 탄소를 포함해 총 6가지 물질이다. …(중략)… 202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가 약 7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 8. 8.(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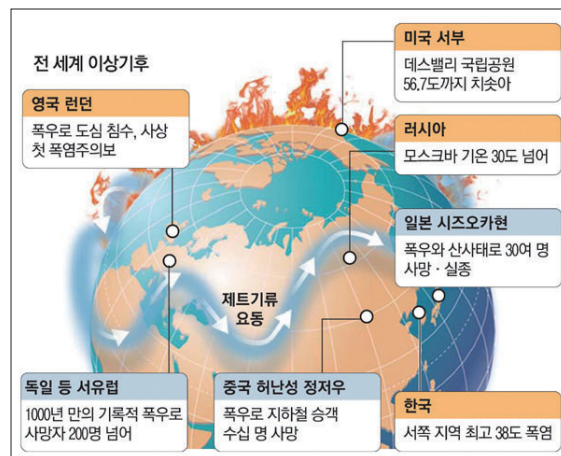
〈탄소 배출량 추이〉

배출량(단위: 억(톤))



출처: 『연합뉴스』, 2021. 4. 20.(출제진 재구성)

〈전 세계 기후 변화〉



출처: 『매일경제』, 2021. 7. 22.

[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제품의 생산원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탄소세를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에 여러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 8. 15.(출제진 재구성)

〈탄소세 도입 국가〉

국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도입연도	1990	1991	1992	2008	2010	2012	2014	2015

출처: 『경향신문』, 2020.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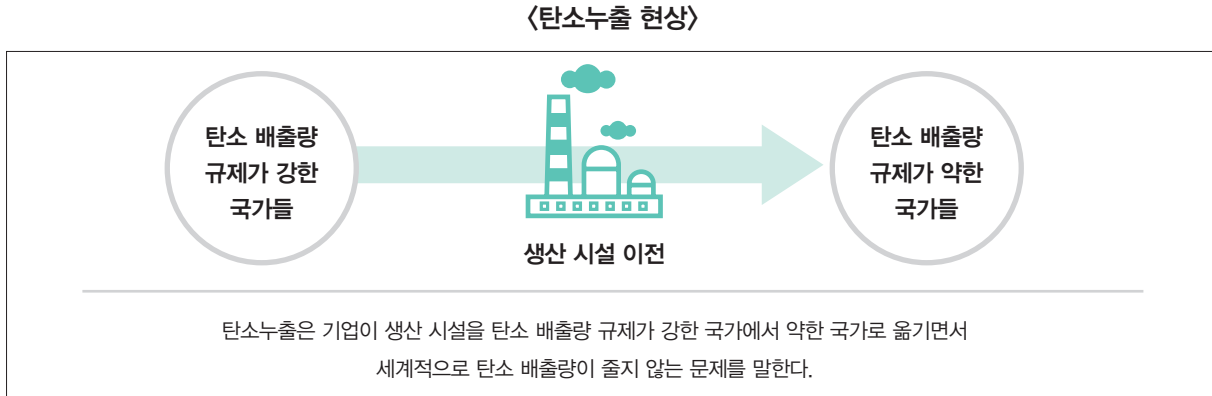
[라]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자원 이용과 개발 수준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등과 환경 보전, 경제 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①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고, ②정부, ③기업, ④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출제진 재구성)

[마] (자료 1)

교토의정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중략)…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탄소 배출 감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중략)…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뉴시스』, 2015. 12. 13.(출제진 재구성)



출처: 『포스코 뉴스룸』, 2024. 3. 21.(출제진 재구성)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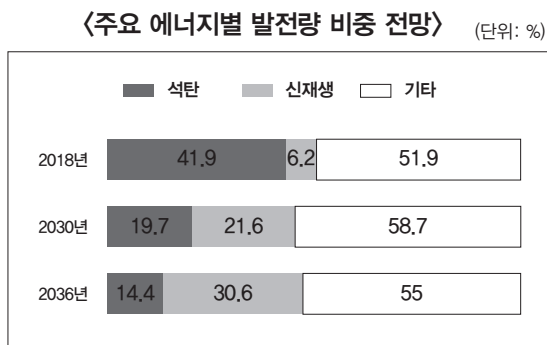
정부는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며,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간접 자본(SOC)*을 제공하기도 한다.

* 사회 간접 자본: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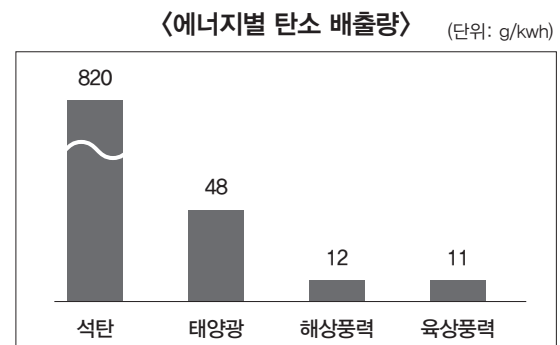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출제진 재구성)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출처: 신정엽 외, 『고등학교 세계지리』



출처: 『헤럴드경제』, 2023. 1. 12.(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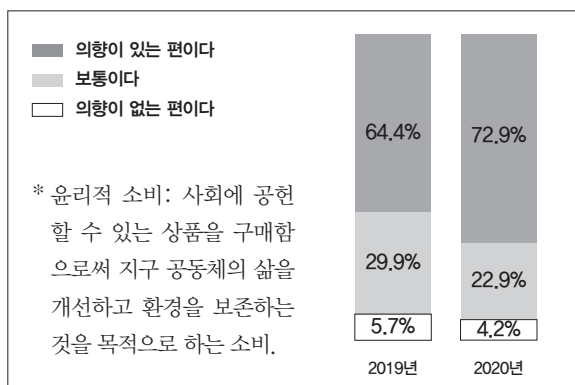
출처: 『서울경제』, 2017. 8. 16.(출제진 재구성)

(자료 3)

기업은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기술 개발,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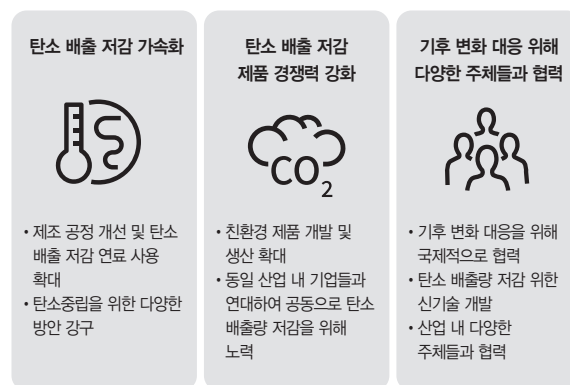
출처: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출제진 재구성)

〈윤리적 소비* 의향 조사〉



출처: 『매드타임즈』, 2020. 7. 29.

〈A 기업의 지속 가능 전략〉



출처: 『A 기업 홈페이지』(출제진 재구성)

(자료 4)

〈일상생활 속 개인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계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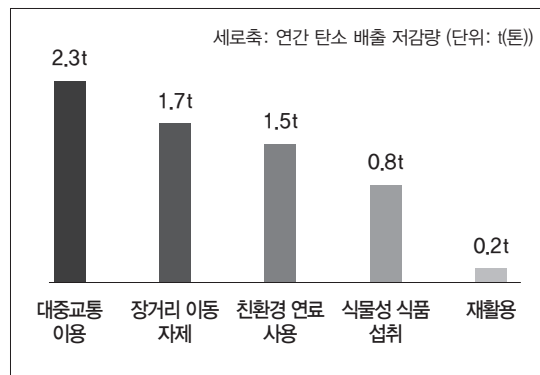
자가용(1500cc 중형)으로 휘발유 40만 원어치 소비	450.67kg	(163그루)
5만 원어치 전기 사용	33.26kg	(122그루)
1만 원어치 가스 사용	5.08kg	(22그루)
기차로 100km 이동	2.26kg	(1그루)
버스 20회 탑승	1.15kg	(0그루)
지하철 20회 탑승	0.04kg	(0그루)

- 한 달간 사용 기준으로 가정해 계산했을 때의 수치임.
- 팔호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 심어야 할 소나무.

* 탄소발자국: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 의미.

출처: 『동아일보』, 2015. 12. 11.(출제진 재구성)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탄소발자국 변화〉



출처: 『BBC 뉴스코리아』, 2023. 5. 20.(출제진 재구성)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2) 자연환경과 인간’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영역의 성취기준 [12세지03-05]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분포 특징을 조사하고, 에너지 생산 및 그 수요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국제적 이동 양상을 분석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44쪽.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5쪽.
『KDI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5쪽 관련.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83쪽.
- [나]: 『한국일보』, 「원래 이로웠던 ‘온실 효과’... 탄소 누적되며 ‘지구’를 뜨겁게 만들다 [인문학 속 경제]」, 2023. 8. 8.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92쪽 관련.

- 『연합뉴스』,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2021. 4. 20.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92쪽 관련.
- 『매일경제』, 「오늘 38도까지 치솟는다…美 57도 中 폭우 지구가 열받았다」, 2021. 7. 22.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92쪽 관련.
- [다]: 『동아일보』, 「신문과 놀재/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비만세, 2018. 8. 15.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83쪽 관련.
 - 『경향신문』, 「바이드노믹스 발맞춰 '탄소세 선제 도입이나, 환경세 정비냐」, 2020. 11. 11.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83쪽 관련.
 - [라]: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85쪽.
 - [마]: 『뉴시스』,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어떤 차이?...2020년부터 기후변화 모든 나라가 책임진다」, 2015. 12. 13.
 - 신정엽 외(2024),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204쪽 관련.
 - 『포스코 뉴스룸』, 「철강업계를 뒤흔들 CBAM, 네가 궁금해!」, 2024. 3. 21.
 - 신정엽 외(2024),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204쪽 관련.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46쪽.
 - 신정엽 외(2024),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97쪽.
 - 『헤럴드경제』, 「원전 비중 2036년 34.6% 국내 최대 전력공급원 된다」, 2023. 1. 12.
 - 신정엽 외(2024),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97쪽 관련.
 - 『서울경제』, 「脫원전 에너지 新 골든룰 찾아라」 태양광 '청정에너지'로 불리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전의 4배, 2017. 8. 16.
 - 신정엽 외(2024),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97쪽 관련.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36쪽.
 - 『매드타임스』, 「트렌드모니터」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는 소비자들, 2020.7. 29.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4쪽 관련.
 - 『LG화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40쪽 관련.
 - 『동아일보』, 「당신의 '탄소발자국' 오늘 얼마나?」, 2015. 12. 11.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4쪽 관련.
 - 『BBC 뉴스코리아』, 「기온 상승을 1.5도로 줄이는 라이프스타일」, 2023. 5. 20.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4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를 활용하여 [나]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을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로 설명하고, [다]의 탄소세 도입을 외부 불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를 통해 [나]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를 외부 불경제의 시장 실패 상황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 외부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통해 [다]의 탄소세 도입은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5점)

[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마]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나]의 기후 변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1)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협력하여 탄소누출을 막아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를 통해 정부는 공익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을 통해 소비자의 다수가 환경 보존을 위한 윤리적 소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가능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를 통해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나]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이며 [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상황으로서 공급자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공급하면서 발생한다. [다]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 또는 고려하는 상황으로 [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의 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라]의 관점에 따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자료 1)과 같이 함께 협력하여 일부 국가만의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한 탄소누출을 억제해야 한다. 정부는 (자료 2)와 같이 공익의 차원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자료 3)과 같이 소비자 다수가 환경 보존을 위한 윤리적 소비 의향이 있으므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개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등 지속 가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은 (자료 4)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NOTE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 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명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
2. 답안 작성란에 개인 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생 인적 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 금지)
4.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감독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중략)……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집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콜레라(cholera):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소화 계통의 전염병. 심한 구토와 설사에 따른 증상. 근육의 경련 따위를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

출처: 박안수 외, 『고등학교 국어』

[나] 드레퓔스 사건이 시작된 지 삼 년이 흘렀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이 그동안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퓔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쾨레르 케스트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 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 두겠습니다. 상테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 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르 장군, 그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요 문서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스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아데프르 장군과 비요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퓔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비요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공스 장군이 드레퓔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일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중략)……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 쉐레르 케스트네르: 드레퓔스 사건 이후 지인에게서 드레퓔스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듣고 그의 재심 운동을 벌인 인물로, 당시 국회 상원 부의장이었다.

출처: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

[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는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제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중략)…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던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함.

* 훈척(勳戚): 나라를 위해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권귀(權貴):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음. 또는 그런 사람.

* 백구지국(伯舅之國):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

* 변발(辮髮): 몽골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땋아 늘임. 또는 그런 머리.

* 호복(胡服): 만주인의 옷. 오랑캐의 옷차림.

* 상인(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출처: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기준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부분에 나오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프랑스의 존경받는 문학인이 군 당국의 잘못된 사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 나오는 「나는 고발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 나오는 「허생전」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박안수 외(2018),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240~241쪽.
- [나]: 박영목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23~127쪽.
- [다]: 정재찬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113~118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사에서 갈릴레이는 당시 권력층이 지지하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해 신의 권위에 도전한 불온한 이단자로 낙인찍혀 목숨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영국 의사 존 스노의 예는 다른 시사점을 준다. 당시 과학자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를 지지했지만, 존 스노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상수도(물)를 통한 전염 경로를 밝혀내 콜레라 예방에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이단적인 발상과 이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는 에밀 졸라(1840~1902)가 1898년 1월 13일 『로르르』신문에 간첩 누명을 쓴 유대인 군인 알프레드 드레퓔스 대위가 무죄임을 폭로한 편지 형식의 글이다. 저자는 1894년 드레퓔스가 적국인 독일에 기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유배되었는데, 1896년 피카르 중령이 에스테라지 소령이 진범임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기존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저자는 군 당국이 드레퓔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제시문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등용할 방법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대장'은 이를 행하는 것은 모두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이 대장'이 기존 통념과 권위에 맞서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의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계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활용해 '이 대장'이 새로운 주장을 할 용기 있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활용해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존 스노를 예로 들어 사회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을 무시한다면 과학의 발전은 늦춰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군 당국이 드레퓔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번) 예시 답안

[다]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의 어진 인재를 등용할 계책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장'은 '허생'의 계책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가]에서처럼 '이 대장'이 새로운 주장을 할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나]와 달리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고,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이념을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이끄는 악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도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제한적 지식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이 모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마당이 시장이다. 개인들이 각자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정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은 사회 발전의 필수적, 절대적 요소이며, 시장과 경쟁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은 사악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장 바깥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출처: 『한겨레』, 2019. 10. 19. (출제진 재구성)

[나] 케인스는 현실의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은 대등하지 않고, 그렇게 대등하지 않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자유 경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이 점을 이렇게 간명하게 요약했다. “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간섭이 전혀 없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불공정한 소득 분배’ 등 이른바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케인스의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뉴딜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대공황 시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출처: 『한겨레』, 2019. 10. 19. (출제진 재구성)

[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독료는 미국 본사의 매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自國) 내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대 IT 기업은 본사가 위치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벌고도 정작 그 국가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세금 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거대 IT 기업들이 위치하지 않은 국가도 자국 내에서 매출을 일으킨 IT 기업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대 IT 기업은 없지만,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정 과세’를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9.5%만을 냈다.

이들 정부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으로

규제하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글로벌 IT 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한 국가들의 반발도 심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들은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稅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 11. 3.(출제진 재구성)

[라] 정부는 시장 실패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의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최선의 대안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둘째, 유권자들이 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에 반대하고,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이 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럴 경우 정책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정책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관료조직의 문제와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출제진 재구성)

[마] (자료 1)

정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 개발에 15조 958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통된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노선 개발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료 2)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배기가스 제로법」을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의무적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G사는 상용 전기 자동차를 양산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은 정부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배기가스 제로법」은 2003년 폐기되었다.

출처: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가이드 답안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 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 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 기준 [10통사05-10]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 성취 기준 [10통사05-02]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관련된다. 이 제시문들은 또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 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성취 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 [마]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 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성취 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나]: 『한겨레』, 「정부개입-시장 자유 ‘세기의 논쟁’」, 2019. 10. 19.
허수미 외(2024)『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79쪽~81쪽
구정화 외(2024)『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0쪽~141쪽
- [다]: 『동아일보』,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전 세계 확산… IT 기업은 “기술 혁신에 악영향” 반발」, 2018. 11. 3.
- [라]: 김종호 외(2024)『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87쪽
- [마]: 허수미 외(2024)『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79쪽~81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루며, [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다룬다. [다]는 국내외에서 부과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다룬다. [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한다.

◆ 채점 기준

아래 내용을 근거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가]의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케인스 수정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정부의 개입이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관점에서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평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라]는 정부의 개입, 정부 실패에 대한 정의와 정부 실패의 원인을 다룬다. [마]의 (자료 1)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 오차로 인한 정부 실패 사례를 다룬다. [마]의 (자료 2)는 자동차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한 정부 실패 사례를 다룬다.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한다.

◆ 채점 기준

아래 내용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마] (자료 1)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부 정보의 불완전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잘못된 예측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마] (자료 2)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 효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시장 실패에 대해 [가]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관점을 설명한다. [나]는 적극적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관점을 보여준다. [다]는 디지털세 논란을 다루는데, [가]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나] 관점에서 디지털세를 통해 정부가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 (자료 1)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에 대한 예측 오류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다루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 실패에 봉착할 수 있다.

(자료 2)는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해 좌절된「배기가스 제로법」을 다룬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실패는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문제 3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의 자료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 각각 제시하고, [다]를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의 역할을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표준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을 발의하며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 등에선 직장 만족도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워 찬성하지만, 기업계 등에선 생산성 저하나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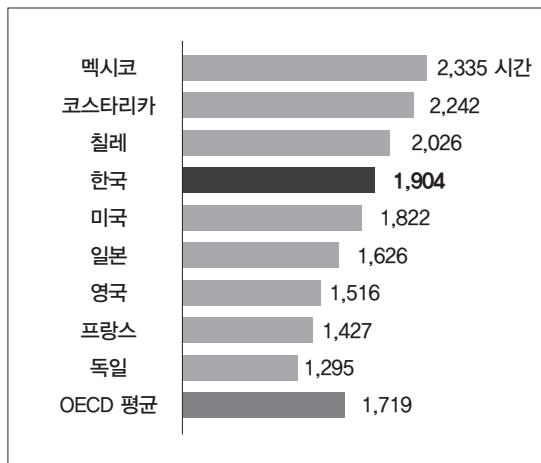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 2024. 4. 15.(출제진 재구성)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구직자들이 쏠리는 직업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기관과 금융, 병원 근로자 업무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고, 이용자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 교수는 “국내서 주 4일제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바이오, 소프트웨어, 빅테크와 같은 일부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조선비즈』, 2024.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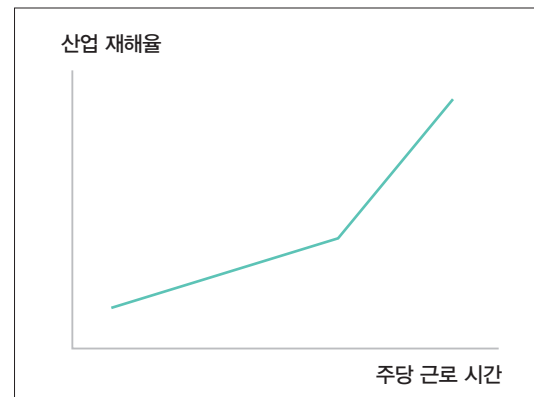
[나] (자료 1)

〈2022년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 시간〉



출처: 『연합뉴스』, 2024. 3. 3.

〈주당 근로 시간과 산업 재해율*의 관계〉



* 산업 재해율: 전체 근로자 중 산업 재해(사망자, 부상자, 업무상 질병 요양자 등)를 당한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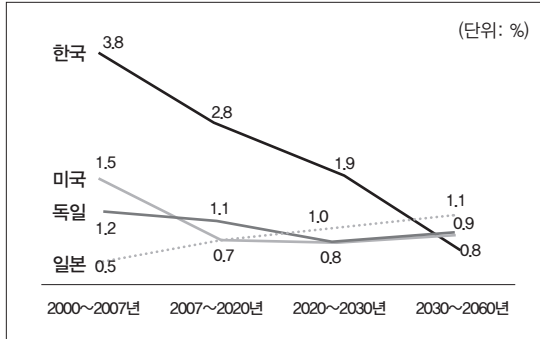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2021. 11. 21.(출제진 재구성)

(자료 2)

기술 진보가 중요하지만, 노동 투입량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민 정책으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인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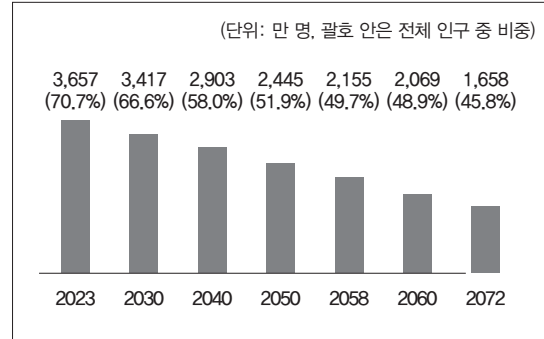
〈국가별 1인당 잠재 성장률* 변화 추이〉



* 잠재 성장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함.

출처: 『세계일보』, 2024. 1. 15.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전망〉



* 생산 연령 인구: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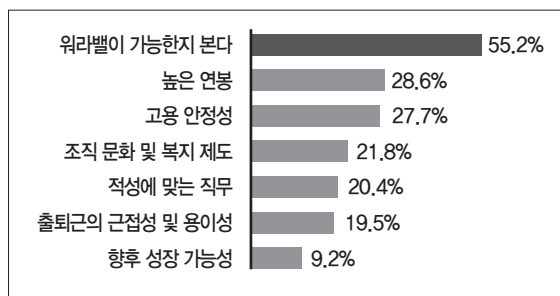
출처: 『매일경제』, 2023. 12. 14.

(자료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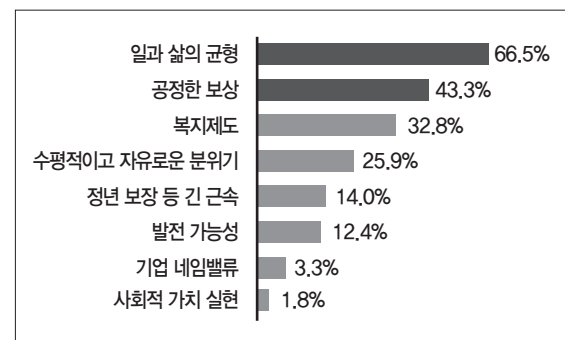
〈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 워라벨: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뜻함.

출처: 『디지털조선일보』, 2018. 3. 28.

〈MZ 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2. 5. 21.

(자료 4)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자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로 나타난다.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사회적 위신, 명예, 교육 수준, 지식 소유 등 사회·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산업별 주 4일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산업 구분	비율
교육	44%
제조업	41%
여행/운송	37%
소매유통	28%
금융	26%
정보기술(IT)/통신	17%

출처: 『ClickUp』, 2022.(출제진 재구성)

〈기업 규모별 유연 근무제* 시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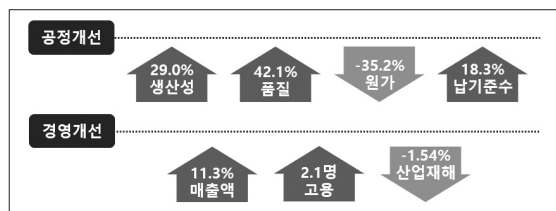
기업 규모 구분	유연 근무제 시행 비율
직원 수 300명 미만	15.8%
직원 수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22.3%
직원 수 1,000명 이상	30.7%

출처: 『파이낸셜투데이』, 2017. 3. 9.(출제진 재구성)

[다]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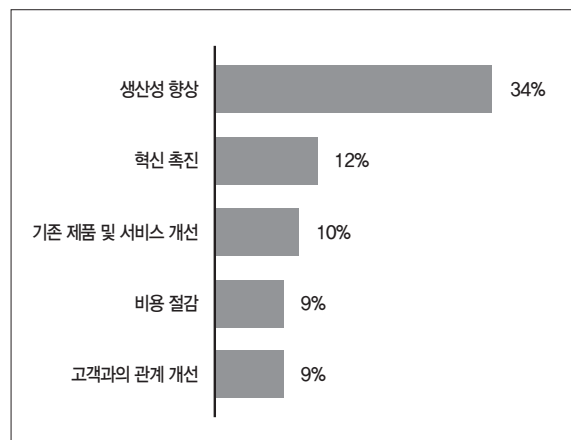
〈스마트 공장* 도입 성과〉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 6. 24.

〈AI 도입 생산성 성과〉



출처: 『정보통신신문』, 2024. 9. 25.

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략)……

한편 국가는 사회적 분열이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모습〉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 사회 주체 간 협력을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함.

출처: 『국민일보』, 2024. 3. 10.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노동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1월 11일~17일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이름	직업	가짜 노동 시간(분)	전체 근무 시간(분)
김○○	초등교사	740	2,850
이○○	공무원	770	2,410
김□□	제조업계	150	2,495
양○○	금융업계	440	2,940
이△△	공무원	1,665	2,685
강○○	사회복지사	710	1,950
김△△	공공기관	1,140	2,550
임○○	제약업계	730	2,720
합계		6,345	20,600

* 가짜 노동: 실제 성과와 상관없는 일, 보여주기식의 일, 단지 바빠 보이기 위한 일들을 의미함.

출처: 『한국일보』, 2024. 2. 27.

가이드 답안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및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와 관련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조선일보』, 「월화수목休休休…美가 쏘아올린 ‘주 4일제’의 꿈’ 한국서도?」, 2024. 4. 15.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42쪽 관련.
 『조선비즈』, 「[주 4일제] ③“가야 할 길이지만, 적용 기업 한정적”…정부·민간 도입 주체 의견 분분」, 2024. 1. 2.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69쪽 관련.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쪽 관련.
- [나]: 『연합뉴스』, 「근로 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2024. 3. 3.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38쪽 관련.

- 『연합뉴스』, 「“주 52시간 이상 사업체 산업 재해율, 40시간 미만의 4.8배”」, 2024. 11. 21.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38쪽 관련.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12쪽.
- 『세계일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나”…韓 잠재 성장률 0%대 위기 [심층기획-‘저성장의 늪’ 기로에 선 한국]」, 2024. 1. 15.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76쪽 관련.
- 『매일경제』, 「이대로면 생산인구 35년 후 반토막…일손·군대·학교도 소멸 위기」, 2023. 12. 14.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13쪽 관련.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69쪽.
- 『디지털조선일보』, 「워라벨 실현의 걸림돌 1위는 ‘야근’, 직장 선택 시 중요한 요건은?」, 2018. 3. 28.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69쪽 관련.
- 『이코노미스트』, 「MZ세대 “워라벨 지켜지고 연봉 3000만원이면 나쁘지 않아” [체크리포트]」, 2022. 5. 21.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69쪽 관련.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쪽.
- 『ClickUp』, 「ClickUp Research Finds 4-day Work Week Threatens to Leave Millions of UK Workers Behind」, 2022. 7. 21.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쪽 관련.
- 『파이낸셜투데이』, 「잡코리아 조사, 직장인 10명중 9명 유연근무제 도입 찬성」, 2017. 3. 9.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쪽 관련.
- [다]: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41쪽.
- 『파이낸셜뉴스』, 「스마트 공장 도입 中 小 “작업 환경 좋아져 젊은 사람들도 일하겠다고 와요” [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2024. 6. 24.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41쪽 관련.
- 『정보통신신문』, 「기업 67%, 생성형 AI 투자 확대…생산성 향상 성과」, 2024. 9. 25.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41쪽 관련.
- 변순용 외(202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188~189쪽.
- 『국민일보』, 「‘저효율 장시간 노동’ 주4일제로 극복할까…노동계 “사회적 논의 시작”」, 2024. 3. 10.
- 변순용 외(202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188~189쪽 관련.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1쪽.
- 『한국일보』, 「우리는 하루 2시간 반을 ‘가짜 노동’에 허비하고 있다」, 2024. 2. 27.
-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1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5점)

[나]에서 적절한 근거를 선택적으로 찾아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자료 1)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많고, 주당 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근로 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에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 4일제 도입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위의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활용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5점)

[다]에 제시된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 각각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정부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 4일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기업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스마트 공장, AI 등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주 4일제 도입으로 줄어든 노동 투입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가짜 노동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주 4일제 도입은 [나]의 (자료 1, 3)을 근거로 찬성할 수 있다. (자료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많고, 근로 시간이 많으면 산업 재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자료 3)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 4일제 도입은 (자료 2, 4)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료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생산 연령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 4일제로 노동 투입량까지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자료 4)에 따르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주 4일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 4일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은 스마트 공장,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주어진 업무 시간에 가짜 노동을 최대한 줄여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PART

4

2025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열]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 집 단 위	
수험 번호		성명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55점)

〈제시문〉

(가) 함수 $f(x)$ 가 실수 a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 는 $x = a$ 에서 연속이라 한다.

(i) 함수 $f(x)$ 는 $x = a$ 에서 정의되어 있다.

(ii) 극한값 $\lim_{x \rightarrow a} f(x)$ 가 존재하고 $\lim_{x \rightarrow a} f(x) = f(a)$

(나) 두 함수 $f(x), g(x)$ 가 미분가능할 때, $\int f(x)g'(x) dx = f(x)g(x) - \int f'(x)g(x) dx$

(다) 두 함수 $f(x),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 = f(x), y = g(x)$ 와

두 직선 $x = a, x = 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는

$$S = \int_a^b |f(x) - g(x)| dx$$

두 이차함수 $f(x)$ 와 $g(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 $f(x)$ 의 이차항의 계수는 1 이고, $g(x)$ 의 이차항의 계수는 -1 이다.

(2) 방정식 $f(x) = 0$ 의 실근은 $0, \alpha$ 이다. (단, $\alpha \neq 0$)

(3) 두 곡선 $y = f(x)$ 와 $y = g(x)$ 의 교점은 원점과 $(t, f(t))$ 이다. (단, $t > 0$)

[문제 1] $-2\pi < \alpha < 2\pi$ 라 하자. 함수 $h(x)$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x \neq 0, x \neq \alpha$ 일 때 $h(x) = \frac{\sin x}{f(x)}$ 이다. $\int_{-2\pi}^{2\pi} f(x) \sin x dx$ 의 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15점)

[문제 2] 두 곡선 $y = f(x)$ 와 $y = g(x)$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라 하고, 두 곡선 $y = f(x),$

$y = g(x)$ 와 두 직선 $x = t, x = 2t$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 라 하자. $B - A = \frac{125}{6}$ 일 때,

$$\sum_{k=1}^n \{f(k) - g(k)\} \leq 5n(n+1)$$

인 자연수 n 의 최댓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 3] 함수 $u(x) = \begin{cases} -1 & (x \leq 0) \\ 1 & (x > 0) \end{cases}$ 와 상수 a_1, a_2, a_3, a_4, a_5 (단, $a_1 < a_2 < a_3 < a_4 < a_5$) 에 대하여

$$s(x) = \sum_{i=1}^5 u(x - a_i)$$

라 하자. 함수 $v(x) = f(\sin x)s(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sum_{i=1}^3 s(a_i) \sin a_i = 9$$

일 때, α 의 값을 구하십시오. (20점)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가이드 답안

문제 1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 의도

[논제 1] 함수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3] 삼각함수의 성질과 함수의 연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이준열 외(2022), 미적분, 천재교육, 138-159쪽
- 고성은 외(2022), 미적분, 좋은책신사고, 155-171쪽
- 홍성복 외(2020), 수학 II, 지학사, 11-43쪽

[논제 1 평가기준]

- $h(x)$ 가 $x = \alpha$ 에서 극한값을 가져야 함을 제시 : 5점
- $f(x) = x^2 \pm \pi x$ 임을 제시 : 4점
- 정답을 제시 : 6점

[논제 2 평가기준]

- $\int_0^{2t} (f(x) - g(x)) dx = \frac{125}{6}$ 임을 제시 : 5점
- $t = \frac{5}{2}$ 임을 제시 : 7점
- 정답을 제시 : 8점

[논제 3 평가기준]

- 함수 $v(x)$ 가 연속일 조건이 $\sin a_i = 0$ 또는 $\sin a_i = \alpha$ 임을 제시 : 6점
- $s(a_1) = -5$, $s(a_2) = -3$, $s(a_3) = -1$ 임을 제시 : 6점
- $\sin a_1 = \sin a_2 = \sin a_3 = -1$ 임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3점

■ 예시 답안

[문제 1] 함수 $h(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h(x)$ 는 $x = \alpha$ 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lim_{x \rightarrow \alpha} f(x) = 0$ 이므로 $h(x)$ 가 $x = \alpha$ 에서 극한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lim_{x \rightarrow \alpha} \sin x = 0$ 이어야 한다.

$\sin \alpha = \lim_{x \rightarrow \alpha} \sin x = 0$ 이므로 $\alpha = \pi$ 또는 $\alpha = -\pi$ 이다.

$\alpha = \pi$ 인 경우 : $f(x) = x^2 - \pi x$ 이고

$$\int_{-2\pi}^{2\pi} f(x) \sin x \, dx = \int_{-2\pi}^{2\pi} (x^2 - \pi x) \sin x \, dx = -\pi \int_{-2\pi}^{2\pi} x \sin x \, dx = 4\pi^2$$

$\alpha = -\pi$ 인 경우 : $f(x) = x^2 + \pi x$ 이고

$$\int_{-2\pi}^{2\pi} f(x) \sin x \, dx = \int_{-2\pi}^{2\pi} (x^2 + \pi x) \sin x \, dx = -4\pi^2$$

그러므로 구하려는 답은 $4\pi^2, -4\pi^2$

[문제 2] 조건 (1), (2), (3)으로부터

$f(x) = x^2 - \alpha x, \quad g(x) = -x^2 + \beta x$ 이다.

$A = \int_0^t (g(x) - f(x)) \, dx, \quad B = \int_t^{2t} (f(x) - g(x)) \, dx$ 이므로

$$\begin{aligned} \frac{125}{6} &= \int_t^{2t} (f(x) - g(x)) \, dx - \int_0^t (g(x) - f(x)) \, dx \\ &= \int_0^{2t} (f(x) - g(x)) \, dx \\ &= \int_0^{2t} (2x^2 - (\alpha + \beta)x) \, dx = \frac{16}{3}t^3 - 2(\alpha + \beta)t^2 \end{aligned}$$

이다. 한편 조건 (3)으로부터 $t^2 - \alpha t = -t^2 + \beta t$ 에서 $t = \frac{\alpha + \beta}{2}$ 이다. 따라서

$$\frac{125}{6} = \frac{16}{3} \times \frac{(\alpha + \beta)^3}{8} - 2(\alpha + \beta) \times \frac{(\alpha + \beta)^2}{4} = \frac{(\alpha + \beta)^3}{6}$$

로부터 $\alpha + \beta = 5$ 이다. 그러므로

$$\sum_{k=1}^n (f(k) - g(k)) = \sum_{k=1}^n (2k^2 - 5k) = 2 \times \frac{n(n+1)(2n+1)}{6} - 5 \times \frac{n(n+1)}{2} \leq 5n(n+1)$$

에서 $2(2n+1) - 15 \leq 30$ 이므로 자연수 n 의 최댓값은 10 이다. 그러므로 구하려는 답은 10

[문제 3] 조건 (1)과 (2)로부터 $f(x) = x^2 - \alpha x$ 이다. $i = 1, 2, 3, 4, 5$ 에 대해

$$\lim_{x \rightarrow a_i^-} s(x) = 2i - 7, \quad s(a_i) = 2i - 7, \quad \lim_{x \rightarrow a_i^+} s(x) = 2i - 5$$

이다(그림 참조). 함수 $v(x) = f(\sin x)s(x)$ 가 $x = a_i$ 에서 연속이므로

$$\begin{aligned} \lim_{x \rightarrow a_i^-} f(\sin x) s(x) &= ((\sin a_i)^2 - \alpha \sin a_i) (2i - 7) \\ &= \lim_{x \rightarrow a_i^+} f(\sin x) s(x) = ((\sin a_i)^2 - \alpha \sin a_i) (2i - 5)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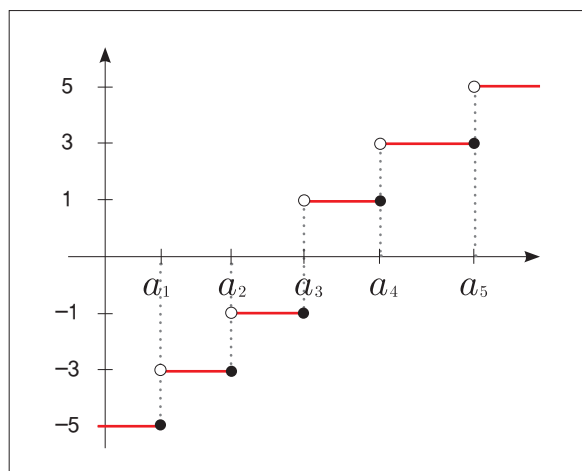
이고 따라서

$$\sin a_i = 0 \text{ 또는 } \sin a_i = \alpha \dots\dots\dots (*)$$

이다. $-1 \leq \sin a_i \leq 1$ 이므로

$$\sum_{i=1}^3 s(a_i) \sin a_i = -5 \sin a_1 - 3 \sin a_2 - \sin a_3 = 9$$

를 만족시키려면 $\sin a_1 = \sin a_2 = \sin a_3 = -1$ 이어야 한다. 따라서 (*)로부터 구하려는 답은 -1



(그림)

NOT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5점)

〈제시문〉

(가)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x_1, y_1), B(x_2, y_2)$ 사이의 거리는

$$\overline{AB} = \sqrt{(x_2 - x_1)^2 + (y_2 - y_1)^2}$$

점 $P(x_1, y_1)$ 과 점 P 를 지나지 않는 직선 $ax + by + c = 0$ ($a \neq 0$ 또는 $b \neq 0$) 사이의 거리는

$$\frac{|ax_1 + by_1 + c|}{\sqrt{a^2 + b^2}}$$

(나) 실수 L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a} f(x) = L \Leftrightarrow \lim_{x \rightarrow a^+} f(x) = \lim_{x \rightarrow a^-} f(x) = L$$

(다) 함수 $f(x)$ 가 미분가능할 때, $f(x)$ 의 $x = a$ 에서의 미분계수는

$$f'(a) = \lim_{h \rightarrow 0} \frac{f(a+h) - f(a)}{h} = \lim_{x \rightarrow a} \frac{f(x) - f(a)}{x - a}$$

(라) 두 함수 $f(x), g(x)$ 가 $x = a$ 에서 미분가능하면 $f(x) + g(x)$ 도 $x = a$ 에서 미분가능하다.

[문제 1] 좌표평면에 네 점 $A(-2, 0), B(-1, 1), C(1, 1), D(2, 0)$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사다리꼴 $ABCD$ 가 있다.

선분 AD 위의 점 $P(x, 0)$ 으로부터 선분 AB , 선분 BC , 선분 CD 까지의 거리 중 가장 작은 값을 $m(x)$ 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의 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20점)

(1) $-2 < a < 2$

(2) 함수 $m(x)$ 는 $x = a$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문제 2] 상수항이 0 이 아닌 일차함수 $f(x)$,

$$g(x) = |x|e^x,$$

$$h(x) = \begin{cases} a & (x < k) \\ 9e^2 & (x \geq k) \end{cases} \quad (\text{단 } a, k \text{ 는 상수이고 } a \neq 9e^2)$$

에 대하여 함수

$$F(x) = f(x+2)g(x) + g(f(x))h(x)$$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F'(k) = 17e^2$ 일 때 $f(a+k)$ 의 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25점)

 문제풀이

[문제 1]

[문제 2]

문제 2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 의도

[논제 1] 점과 선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고 미분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이준열 외(2020), 수학 II, 천재교육, 53-72쪽
- 박교식 외(2022), 미적분, 동아출판, 51-98쪽
- 권오남 외(2022), 미적분, 교학사, 54-91쪽

[논제 1 평가기준]

- 함수 $m(x)$ 를 제시 : 12점
- 정답을 제시 : 8점

[논제 2 평가기준]

- $k = 2$ 임을 제시 : 7점
- $a = -9e^2$ 임을 제시 : 8점
- $f(x)$ 의 일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 또는 음수인 경우의 답을 제시 : 5점
- 정답을 제시 : 5점

■ 예시 답안

[논제 1] 점 $P(x, 0)$ 으로부터 선분 AB , 선분 BC , 선분 CD 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여

$$m(x) = \begin{cases} \frac{x+2}{\sqrt{2}} & (-2 \leq x < \sqrt{2}-2) \\ 1 & (\sqrt{2}-2 \leq x < 2-\sqrt{2}) \\ \frac{2-x}{\sqrt{2}} & (2-\sqrt{2} \leq x \leq 2) \end{cases}$$

를 얻는다. 따라서

$$\lim_{x \rightarrow \sqrt{2}-2+} \frac{m(x) - m(\sqrt{2}-2)}{x - (\sqrt{2}-2)} = 0, \quad \lim_{x \rightarrow \sqrt{2}-2-} \frac{m(x) - m(\sqrt{2}-2)}{x - (\sqrt{2}-2)} = \frac{1}{\sqrt{2}} \quad \text{이고}$$

$$\lim_{x \rightarrow 2-\sqrt{2}+} \frac{m(x) - m(2-\sqrt{2})}{x - (2-\sqrt{2})} = -\frac{1}{\sqrt{2}}, \quad \lim_{x \rightarrow 2-\sqrt{2}-} \frac{m(x) - m(2-\sqrt{2})}{x - (2-\sqrt{2})} = 0 \quad \text{이다.}$$

그러므로 구하려는 답은 $\sqrt{2}-2$ 와 $2-\sqrt{2}$

[문제 2] $f(x) = mx + n$ 이라 하면 $F(x) = (mx + 2m + n)|x|e^x + |mx + n|e^{mx+n}h(x)$ 이다.

$$G(x) = (mx + 2m + n)|x|e^x,$$

$$H(x) = |mx + n|e^{mx+n}h(x)$$

라 하자. $F(x)$ 와 $G(x)$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H(x)$ 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런데 $k \neq -\frac{n}{m}$ 이면 $H(x)$ 가 $x = k$ 에서 불연속이 되므로 $k = -\frac{n}{m}$ 이다.

$F(x)$ 와 $H(x)$ 가 $x = 0$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G(x)$ 는 $x = 0$ 에서 미분가능하다.

$$\lim_{x \rightarrow 0+} \frac{G(x) - G(0)}{x} = \lim_{x \rightarrow 0+} (mx + 2m + n)e^x = 2m + n,$$

$$\lim_{x \rightarrow 0-} \frac{G(x) - G(0)}{x} = -\lim_{x \rightarrow 0-} (mx + 2m + n)e^x = -(2m + n)$$

이므로 $2m + n = -(2m + n)$ 으로부터 $2m + n = 0$ 이다.

$F(x)$ 와 $G(x)$ 가 $x = -\frac{n}{m} = 2$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H(x) = |mx - 2m|e^{mx-2m}h(x)$ 는 $x = 2$ 에서 미분가능하다.

$k = -\frac{n}{m} = 2$ 이므로

$$\lim_{x \rightarrow 2+} \frac{H(x) - H(2)}{x - 2} = \lim_{x \rightarrow 2+} |m|e^{mx-2m}9e^2 = 9e^2|m|,$$

$$\lim_{x \rightarrow 2-} \frac{H(x) - H(2)}{x - 2} = -\lim_{x \rightarrow 2-} |m|e^{mx-2m}a = -a|m|$$

이고, $9e^2|m| = -a|m|$ 으로부터 $a = -9e^2$ 이다.

$$F'(2) = G'(2) + H'(2) = 8e^2m + 9e^2|m| = 17e^2$$

으로부터 $m = 1$ 또는 $m = -17$ 이다.

(i) $m = 1$ 인 경우

$$f(x) = x - 2 \text{ 이고, } f(a + k) = f(-9e^2 + 2) = -9e^2 \text{ 이다.}$$

(ii) $m = -17$ 인 경우

$$f(x) = -17x + 34 \text{ 이고, } f(a + k) = f(-9e^2 + 2) = 153e^2 \text{ 이다.}$$

(i)과 (ii)로부터 구하려는 답은 $-9e^2$ 과 $153e^2$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자연 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명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
2. 답안 작성란에 개인 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생 인적 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 금지)
4.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감독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5점)

〈제시문〉

(가) 임의의 세 실수 a, b, c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함수 $f(x)$ 가 연속일 때

$$\int_a^c f(x) dx + \int_c^b f(x) dx = \int_a^b f(x) dx$$

(나) 두 직선 $y = mx + n$, $y = m'x + n'$ 에 대하여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mm' = -1$ 이다.

(다) 함수 $f(x)$ 가 $x = a$ 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 = f(x)$ 위의 점 $P(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 f(a) = f'(a)(x - a)$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a 인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g(x) = \int_1^x f(t) dt$ 는 $x = -2, 0, 2$ 에서 극값을 갖는다.

[문제 1] $\int_0^2 f(t) dt = -2 - g(0)$ 일 때, $g(-2)$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문제 2] 두 직선 ℓ 과 m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1) 직선 ℓ 은 곡선 $y = f(x)$ 위의 점 $A(1, f(1))$ 에서의 접선이다.
- (2) 직선 ℓ 과 m 은 점 $A(1, f(1))$ 에서 만나고 서로 수직이다.

직선 m 의 x 절편이 13일 때, a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3] 좌표평면 위의 점 P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1) 점 P 는 x 축 위에 있다. (단, 점 P 의 x 좌표는 양수)
- (2) 곡선 $y = f(x)$ 의 접선 중 점 P 를 지나는 접선은 두 직선 ℓ' , m' 뿐이다.

직선 ℓ' 과 m' 이 서로 수직일 때, a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1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 의도

[논제 1] 정적분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3] 삼차함수의 접선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박교식 외(2024), 수학 II, 동아출판, 126-131쪽
- 배종숙 외(2024), 수학, 금성출판사, 131-133쪽
- 박교식 외(2024), 미적분, 동아출판, 101-103쪽

■ 문항해설

[논제 1]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논제 2] 함수의 접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논제 3] 삼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 예시 답안

[논제 1] 삼차함수 $f(x) = ax(x^2 - 4)$ 가 원점에 대칭이므로

$$-2 - g(0) = \int_0^2 f(t) dt = \int_0^{-2} f(t) dt = \int_1^{-2} f(t) dt - \int_1^0 f(t) dt = g(-2) - g(0)$$

따라서 $g(-2) = -2$ 이다.

[논제 2] $f(x) = ax(x^2 - 4) = ax^3 - 4ax$ 이므로 $f'(x) = 3ax^2 - 4a$ 이고 $f'(1) = -a$ 이다.

따라서 직선 m 은 점 A 를 지나고 직선 ℓ 에 수직이므로 직선 m 의 방정식은

$$y = \frac{1}{a}(x - 1) - 3a \text{ 이다. 직선 } m \text{ 이 점 } (13, 0) \text{ 을 지나고 } a \text{ 가 양수이므로 } a = 2 \text{ 이다.}$$

[문제 3] 곡선 $y = f(x)$ 위의 각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x 절편을 살펴보면, 곡선 $y = f(x)$ 의 변곡점이

x 축 위에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 (2)를 만족시키는 점 P 는 오로지 $P(2, 0)$ 뿐이고 이 경우 두 접선 중 하나는 점 P 에서 곡선 $y = f(x)$ 에 접한다.

곡선 $y = f(x)$ 와 점 P 에서 접하는 직선을 ℓ' 이라 하고, 점 P 를 지나고 곡선 $y = f(x)$ 와 점 P 가 아닌 점 $B(b, f(b))$ 에서 접하는 직선을 m' 이라 하자. 직선 m' 의 방정식은

$$y = f'(b)(x - b) + f(b) = (3ab^2 - 4a)(x - b) + ab^3 - 4ab$$

이고, 직선 m' 은 점 $P(2, 0)$ 을 지나므로

$$6ab^2 - 2ab^3 - 8a = 0$$

이다.

$$(b + 1)(b - 2)^2 = 0$$

에서 $b = -1$, $b = 2$. $b \neq 2$ 이므로 $b = -1$. 즉, 점 $B(-1, f(-1))$ 에서 직선 m' 과 곡선 $y = f(x)$ 는 접한다. 두 접선 ℓ' , m' 은 서로 수직이므로

$$-1 = f'(-1)f'(2) = (3a - 4a)(12a - 4a)$$

이고 a 가 양수이므로 $a = \frac{\sqrt{2}}{4}$ 이다.

NOT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5점)

〈제시문〉

(가) $\int \frac{1}{x} dx = \ln |x| + C$ (단, C 는 적분상수)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함수 $x = g(t)$ 에 대하여

$a = g(\alpha), b = g(\beta)$ 일 때 도함수 $g'(t)$ 가 α, β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int_a^b f(x) dx = \int_{\alpha}^{\beta} f(g(t))g'(t) dt$$

(다)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f'(a) = 0$ 이고 $x = a$ 의 좌우에서

- $f'(x)$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대이고, 극댓값은 $f(a)$
- $f'(x)$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 는 $x = a$ 에서 극소이고, 극솟값은 $f(a)$

$$f(x) = \frac{\cos x}{2 + \sin x} \text{ 라 하자.}$$

[문제 1] $0 < a < \frac{\pi}{2}$ 에 대하여

$$\int_0^a \frac{2 \sin x + 1}{2 \cos x + \sin x \cos x} dx = 1$$

일 때, $f(a)$ 의 값을 구하십시오. (단, a 는 상수) (20점)

[문제 2]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 의 값과 범위를 모두 구하십시오. (25점)

$$\frac{\pi}{2} \leq x \leq 2\pi \text{ 에서}$$

곡선 $y = |3f(x) - k|$ 와 직선 $y = 1$ 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2 이다.

가이드 답안

문제 2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출제 의도

[논제 1]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

자료출처

- 고성은 외(2024), 수학 I, 좋은책신사고, 26~31쪽
- 박교식 외(2024), 미적분, 동아출판, 134~139쪽
- 김원경 외(2024), 수학 I, 비상교육, 74~80쪽

문항해설

[논제 1]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논제 2]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예시 답안

[논제 1] 치환적분법에 의하여

$$1 = \int_0^a \frac{2\sin x + 1}{2\cos x + \sin x \cos x} dx = \int_0^a \frac{2\sin x + 1}{(2 + \sin x)^2} \times \frac{2 + \sin x}{\cos x} dx = - \int_0^a \frac{f'(x)}{f(x)} dx$$

$$= [-\ln |f(x)|]_0^a = \ln \frac{|f(0)|}{|f(a)|}$$

이다. 따라서 $f(a) = \frac{1}{2e}$ 이다.

(별해1)

$$1 = \int_0^a \frac{2\sin x + 1}{2\cos x + \sin x \cos x} dx = \int_0^a \frac{\sin x(2 + \sin x) + 1 - \sin^2 x}{2\cos x + \sin x \cos x} dx = \int_0^a \tan x dx + \int_0^a \frac{\cos x}{2 + \sin x} dx$$

$$= \ln \frac{1}{2f(a)}$$

(별해2)

$$1 = \int_0^a \frac{2\sin x + 1}{2\cos x + \sin x \cos x} dx = \int_0^a \frac{(2\sin x + 1)\cos x}{\cos^2 x (2 + \sin x)} dx \text{ 에서 } \sin x = t \text{ 로 치환하면}$$

$$\ln \frac{1}{2f(a)} = 1 \text{ 이다.}$$

[문제 2] 구간 $\left[\frac{\pi}{2}, 2\pi\right]$ 에서 $y = f(x)$ 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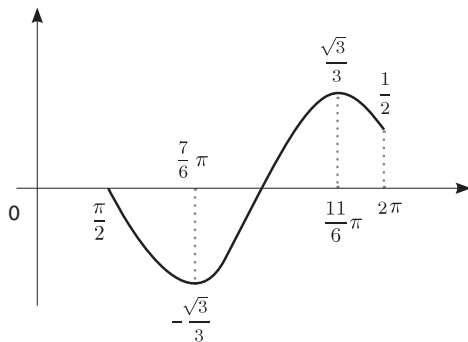
$$f'(x) = \frac{-(2 + \sin x)\sin x - \cos^2 x}{(2 + \sin x)^2} = -\frac{2\sin x + 1}{(2 + \sin x)^2} = 0$$

으로부터 $x = \frac{7}{6}\pi$ 일 때 극솟값 $-\frac{\sqrt{3}}{3}$ 을 갖고, $x = \frac{11}{6}\pi$ 일 때 극댓값 $\frac{\sqrt{3}}{3}$ 을 갖는다. 또한

• $f'(x) > 0$ 인 경우 : $2\sin x + 1 < 0$, 즉 $\frac{7}{6}\pi < x < \frac{11}{6}\pi$ 에서 $f(x)$ 는 증가

• $f'(x) < 0$ 인 경우 : $2\sin x + 1 > 0$, 즉 $\frac{\pi}{2} \leq x < \frac{7}{6}\pi$ 또는 $\frac{11}{6}\pi < x \leq 2\pi$ 에서 $f(x)$ 는 감소

한다. 이를 이용하여 $y = f(x)$ 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곡선 $y = f(x)$ 의 개형

$|3f(x) - k| = 1$ 은, $f(x) = \frac{k-1}{3}$, $f(x) = \frac{k+1}{3}$ 이므로 곡선 $y = |3f(x) - k|$ 와 직선 $y = 1$ 의

교점의 개수가 2인 경우는 곡선 $y = f(x)$ 와 직선 $y = \frac{k-1}{3}$ 의 교점과 곡선 $y = f(x)$ 와 직선

$y = \frac{k+1}{3}$ 의 교점의 합이 2인 경우와 같다.

두 직선 $y = \frac{k-1}{3}$ 와 $y = \frac{k+1}{3}$ 의 거리 d 가 $\frac{2}{3}$ 이고 $d = \frac{2}{3} > \frac{\sqrt{3}}{3}$, $d = \frac{2}{3} > \frac{1}{2}$ 임에 주목하여

두 직선 $y = \frac{k-1}{3}$ 와 $y = \frac{k+1}{3}$ 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의 합이 2인 경우를 살펴보면 구하는

k 의 값의 범위는

$$(i) -\frac{\sqrt{3}}{3} < \frac{k+1}{3} \leq 0 \text{ 경우} : -1 - \sqrt{3} < k \leq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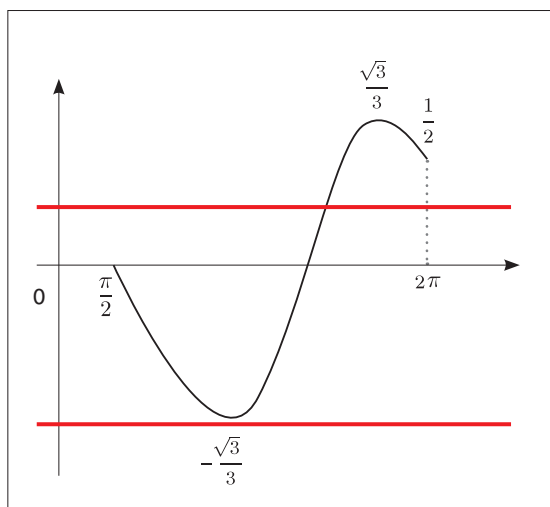
$$(ii) \frac{k-1}{3} = -\frac{\sqrt{3}}{3} \text{ 인 경우} : k = 1 - \sqrt{3}$$

$$(iii) \frac{\sqrt{3}}{3} - \frac{2}{3} < \frac{k-1}{3} \leq 0 \text{ 인 경우} : -1 + \sqrt{3} < k \leq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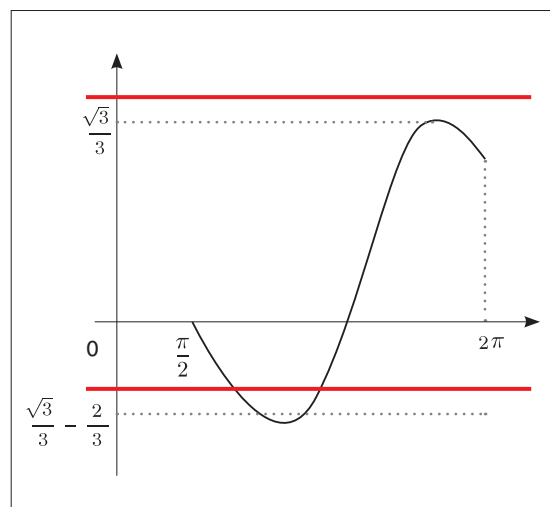
$$(iv) \frac{1}{2} \leq \frac{k-1}{3} < \frac{\sqrt{3}}{3} \text{ 인 경우} : \frac{5}{2} \leq k < 1 + \sqrt{3}$$

이다. 요약하면

$$-1 - \sqrt{3} < k \leq -1, \quad 1 - \sqrt{3}, \quad -1 + \sqrt{3} < k \leq 1, \quad \frac{5}{2} \leq k < 1 + \sqrt{3}$$



경우 (ii)의 예



경우 (iii)의 예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자연 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명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
2. 답안 작성란에 개인 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생 인적 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 금지)
4.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감독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55점)

〈제시문〉

(가) 함수 $f(x)$ 가 임의의 세 실수 a, b, c 를 포함하는 닫힌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_a^c f(x) dx + \int_c^b f(x) dx = \int_a^b f(x) dx$$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함수 $x = g(t)$ 에 대하여

$a = g(\alpha)$ $b = g(\beta)$ 일 때 도함수 $g'(t)$ 가 α, β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int_a^b f(x) dx = \int_\alpha^\beta f(g(t))g'(t) dt$$

(다) 두 함수 $f(x), g(x)$ 가 미분가능하고 $f'(x),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int_a^b f(x) g'(x) dx = \left[f(x) g(x) \right]_a^b - \int_a^b f'(x) g(x) dx$$

(라) 함수 $f(x)$ 가 실수 a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 는 $x = a$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i) 함수 $f(x)$ 는 $x = a$ 에서 정의되어 있다.

(ii) 극한값 $\lim_{x \rightarrow a} f(x)$ 가 존재한다.

(iii) $\lim_{x \rightarrow a} f(x) = f(a)$

함수 $f(x)$ 가 $x = a$ 에서 연속이 아닐 때, $f(x)$ 는 $x = a$ 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

실수 t 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 x^2 + |x - t|$ 의 최솟값을 $g(t)$ 라 하자.
사차함수 $h(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이고 $h(1) = 0$, $h(-1) \neq g(0)$ 이다.

[문제 1] $-\frac{1}{2} < t < \frac{1}{2}$ 일 때, $g(t)$ 를 구하시오. (15점)

[문제 2] $\int_{-1}^1 [\ln(|g'(t)| + 1)]^2 dt$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3] 실수 k 에 대하여, x 축에 평행한 직선 $y = k$ 와 곡선 $y = h(x)$ 의 교점의 개수를 $n(k)$ 라 하자.

함수 $n(k)$ 가 $k = 0$ 과 $k = 1$ 에서만 불연속일 때, $h(4)$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1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제 의도

[논제 1] 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3] 사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료출처

- 류희찬 외(2024), 수학, 천재교과서, 70-74쪽
- 김원경 외(2024), 수학 II, 비상교육, 51-67쪽, 78-89쪽
- 고성은 외(2024), 미적분, 좋은책신사고, 132-148쪽

■ 문항해설

[논제 1] 절댓값이 포함된 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논제 2]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논제 3]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값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 예시 답안

[논제 1] $-\frac{1}{2} < t < \frac{1}{2}$ 이므로

- $x \geq t$ 이면 $f(x) = x^2 + x - t = \left(x + \frac{1}{2}\right)^2 - \frac{1}{4} - t$ 는 $x = t$ 에서 최솟값 $f(t) = t^2$ 을 갖는다.
- $x \leq t$ 이면 $f(x) = x^2 - x + t = \left(x - \frac{1}{2}\right)^2 - \frac{1}{4} + t$ 는 $x = t$ 에서 최솟값 $f(t) = t^2$ 을 갖는다.

그러므로 두 경우 모두 $f(x)$ 의 최솟값은 $f(t) = t^2$ 이다. 따라서 $g(t) = t^2$ 이다.

[논제 2] [논제 1]과 마찬가지로 $t \geq \frac{1}{2}$ 일 때,

- $x \geq t$ 이면 $f(x) = x^2 + x - t = \left(x + \frac{1}{2}\right)^2 - \frac{1}{4} - t$ 의 최솟값은 $f(t) = t^2$,
- $x \leq t$ 이면 $f(x) = x^2 - x + t = \left(x - \frac{1}{2}\right)^2 - \frac{1}{4} + t$ 의 최솟값은 $f\left(\frac{1}{2}\right) = t - \frac{1}{4}$

$t^2 \geq t - \frac{1}{4}$ 이므로 $f(x)$ 의 최솟값은 $t - \frac{1}{4}$ 이다. 따라서 $g(t) = t - \frac{1}{4}$ 이다.

$t \leq -\frac{1}{2}$ 일 때, $-t \geq \frac{1}{2}$ 이므로 $f(x)$ 의 최솟값은 $-t - \frac{1}{4}$ 이다. 따라서 $g(t) = -t - \frac{1}{4}$ 이다.

정리하면

$$g(t) = \begin{cases} -t - \frac{1}{4} & \left(t \leq -\frac{1}{2}\right) \\ t^2 & \left(-\frac{1}{2} < t < \frac{1}{2}\right) \\ t - \frac{1}{4} & \left(t \geq \frac{1}{2}\right) \end{cases} \quad \text{이고} \quad g'(t) = \begin{cases} -1 & \left(t \leq -\frac{1}{2}\right) \\ 2t & \left(-\frac{1}{2} < t < \frac{1}{2}\right) \\ 1 & \left(t \geq \frac{1}{2}\right) \end{cases}$$

함수 $g'(t)$ 는 원점에 대칭이므로

$$\int_{-1}^1 \{\ln(|g'(t)| + 1)\}^2 dt = 2 \int_0^{\frac{1}{2}} \{\ln(2t + 1)\}^2 dt + 2 \int_{\frac{1}{2}}^1 (\ln 2)^2 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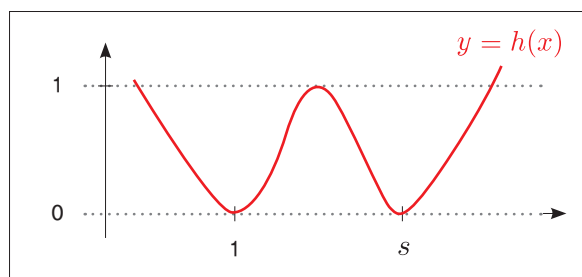
이다.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2회)을 활용하면

$$2 \int_0^{\frac{1}{2}} \{\ln(2t + 1)\}^2 dt = \int_1^2 (\ln u)^2 du = 2(\ln 2)^2 - 4\ln 2 + 2$$

이므로

$$\int_{-1}^1 \{\ln(|g'(t)| + 1)\}^2 dt = 3(\ln 2)^2 - 4\ln 2 + 2$$

[문제 3] 함수 $h(x)$ 가 $x = x_0$ 에서 극값을 가지면 함수 $n(k)$ 는 $k = h(x_0)$ 에서 불연속이다.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h(x)$ 의 극값은 3개이고, 세 극값 중 극솟값이 동일하다. (아래 그림)



$n(k)$ 가 특히, $k = 0$ 에서 불연속이고 $h(x)$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h(x) = (x-1)^2(x-s)^2$$

의 꼴이고 (s 는 상수), $h(x)$ 는 $x = \frac{s+1}{2}$ 에서 극댓값을 갖는다. 또한 $n(k)$ 가 $k = 1$ 에서 불연속이므로

$h(x)$ 는 $x = \frac{s+1}{2}$ 에서 극댓값 1을 갖는다. 따라서

$$h\left(\frac{s+1}{2}\right) = \left(\frac{s-1}{2}\right)^4 = 1$$

에서 $s = 3$ 또는 $s = -1$ 이다.

$h(-1) \neq g(0) = 0$ 이므로 $h(x) = (x-1)^2(x-3)^2$ 이고 $h(4) = 9$ 이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5점)

〈제시문〉

(가) 함수 $y = f(x)$ 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 에 대하여

$$f(x+p) = f(x)$$

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 가 존재할 때, 함수 $y = f(x)$ 를 주기함수라 하고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

(나) 함수 $f(x)$ 가 a, b 를 포함하는 열린구간에서 연속이고, $f(x)$ 의 한 부정적분을 $F(x)$ 라 하면

$f(x)$ 의 a 에서 b 까지의 정적분은

$$\int_a^b f(x) dx = \left[F(x) \right]_a^b = F(b) - F(a)$$

자연수 n 에 대하여, $2(n-1) \leq x < 2n$ 일 때 $f(x) = \sin(n\pi x)$ 라 하자.

[문제 1] $\int_0^t f(x) dx = \frac{1}{6\pi}$ 을 만족시키는 실수 t 의 최댓값을 구하십시오. (단, $0 \leq t \leq 6$) (20점)

[문제 2]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m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25점)

$0 \leq k \leq m$ 이고 $\int_0^k f(x) dx = 0$ 인 실수 k 의 개수가 18이다.

가이드 답안

문제 2

예시 답안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술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출제 의도

[논제 1]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논제 2]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

자료출처

- 김원경 외(2024), 수학 I, 비상교육, 76-91쪽
- 박교식 외(2024), 수학 II, 동아출판, 122-125쪽
- 고성은 외(2024), 미적분, 좋은책신사고, 126-131쪽, 140-148쪽

문항해설

[논제 1] 정적분을 이용하여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논제 2]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하여 삼각함수의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예시 답안

[논제 1] 먼저 닫힌구간 $[4, 6]$ 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 를 찾아보자.

$$\int_0^4 f(x) dx = 0 \text{ 이므로 } \frac{1}{6\pi} = \int_0^t f(x) dx = \int_4^t \sin(3\pi x) dx = \left[-\frac{1}{3\pi} \cos(3\pi x) \right]_4^t$$

즉, 닫힌구간 $[4, 6]$ 에서 $\cos 3\pi t = \frac{1}{2}$ 을 만족시키는 t 의 값은

$$\frac{37}{9}, \frac{41}{9}, \frac{43}{9}, \frac{47}{9}, \frac{49}{9}, \frac{53}{9}$$

이다. 그러므로 닫힌구간 $[0, 6]$ 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t 의 최댓값은 $\frac{53}{9}$ 이다.

[문제 2] $0 \leq k < 2$ 이고 $\int_0^k f(x) dx = \int_0^k \sin(\pi x) dx = 0$ 인 k 의 개수는 1,

$2 \leq k < 4$ 이고 $\int_0^k f(x) dx = \int_2^k \sin(2\pi x) dx = 0$ 인 k 의 개수는 2,

$4 \leq k < 6$ 이고 $\int_0^k f(x) dx = \int_4^k \sin(3\pi x) dx = 0$ 인 k 의 개수는 3,

$6 \leq k < 8$ 이고 $\int_0^k f(x) dx = \int_6^k \sin(4\pi x) dx = 0$ 인 k 의 개수는 4,

$8 \leq k < 10$ 이고 $\int_0^k f(x) dx = \int_8^k \sin(5\pi x) dx = 0$ 인 k 의 개수는 5

이므로 구간 $0 \leq k < 10$ 에서 $\int_0^k f(x) dx = 0$ 인 실수 k 의 개수는 15 이다. 따라서 $10 \leq k \leq m$ 일 때

$$\int_0^k f(x) dx = \int_{10}^k f(x) dx = 0$$

을 만족시키는 k 의 개수가 3 이어야 한다.

$$0 = \int_{10}^k f(x) dx = \int_{10}^k \sin 6\pi x dx = -\frac{1}{6\pi} \left[\cos 6\pi x \right]_{10}^k$$

이므로 $10 \leq k < 12$ 일 때 $\cos 6\pi k = 1$ 을 만족시키는 k 의 값을 모두 구하면

$$10, 10 + \frac{1}{3}, 10 + \frac{2}{3}, 11, 11 + \frac{1}{3}, 11 + \frac{2}{3}$$

이다. 따라서 구간 $10 \leq k \leq m$ 인 k 가 3 개뿐이기 위한 m 의 값의 범위는 $\frac{32}{3} \leq m < 11$ 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지 (인문계열)

감독관 성명		성명

【유의사항】

1. 답안 작성란에 개인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생 인적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금지)
3.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A	1					
●	○	○	○	○	○	○
①	●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문제 1 - 논제 1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250자 내외)

A 30x30 grid with a blue shaded area at the bottom. The shaded area consists of a solid blue row at the bottom (row 29) and a row above it (row 28) where the first 10 cells are white and the remaining 20 cells are blue. The grid is labeled with numbers 0, 60, 120, 180, 240, and 300 on the right side, corresponding to horizontal lines.

문제 1 - 논제 2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250자 내외)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지 (자연계열)

모 집 단 위

성 명

감독관
성 명

수험번호

A

1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년월일 (예: 061103)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 【유의사항】
1. 답안 작성란에 개인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생 인적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금지)

3.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 논제 1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문제 1 - 논제 2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문제 1 - 논제 3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문제 2 - 논제 1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

문제 2 - 논제 2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T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T 041.550.1234~6
단국대학교 대표전화 1899-3700



대학 홈페이지



입학안내 홈페이지